

# 부산을 키운 기업, 부산의 건강을 키웁니다

부산에서 시작해  
부산과 함께 성장해 온 기업의 이름이  
이제 부산 시민의 일상 속으로 스며듭니다.

『부산체육』은  
전문체육, 학교체육, 생활체육과 지역체육 현안까지  
부산의 '움직임'을 기록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기업의 가치와 신뢰가  
시민의 건강, 지역의 미래로 이어지는 선택.

자세한 사항과 광고문의는 051-500-7921로 부탁드립니다.

자랑스러운 부산을 위한  
더 자랑스러운 부산의 광고,  
정기간행물 『부산체육』과 함께하십시오.

# 부산체육

부산광역시체육회 매거진  
Busan Sports Council Magazine

Vol. **86**  
2026. 01



2026 부산광역시체육회 비전과 목표  
2026 부산광역시체육회 비전과 목표

Sports is Busan  
2025 WADA 총회

종목 소개  
스피드 스케이팅

# 부산체육

부산광역시체육회 매거진  
Busan Sports Council Magazine

2026. 1 Vol. 86

발행일 2026년 1월 15일  
(월간, 비매품, 통권 제86호)  
발행인 부산광역시체육회 회장 장인화  
편집인 신현기  
편집·취재 문찬식, 공제원, 김성무, 유동호  
발행처 부산광역시체육회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로 77  
051-500-7900  
기획·제작 (주)디자인제로

인스타그램과 카카오톡 채널에서도 부산광역시체육회 소식을 만날 수 있습니다.  
@Instagram 카카오톡채널

## CONTENTS

### 부산 스포츠

- 04 **신년사**
  -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
  - 부산광역시 박형준 시장
  - 부산광역시의회 안성민 의장
  - 부산광역시교육청 김석준 교육감
  - 2026 회원구·단체육회 회장
- 16 **부산체육인**
  - 부산광역시스키스노보드협회 박재영 회장
  - 부산광역시체육회 신입사원 4인 소개

### 산뜻한 출발, 영광의 시작

- 24 **2026 부산광역시체육회 비전과 목표**  
2026 부산광역시체육회 비전과 목표
- 30 **Sports is Busan**  
2025 WADA 총회

### 하 나된 꿈, 행복으로

- 34 **푸른 바다, 큰 꿈**  
한국조형예술고등학교 김태희 선수
- 38 **종목 소개**  
스피드 스케이팅
- 42 **스포츠&컬처**  
트렌드 코리아 2026

### 나와 너, 우리 함께

- 44 **BSC 뉴스**
  - '2025 부산체육인의 밤' 행사 개최
  - 부산광역시체육회 2025년 Big 5 성과 선정
  - 레슬링 양정모 선수 '대한민국 최초 금메달' 예비문화유산 선정
- 48 **회원단체 소식**
- 52 **센터 INFO**
- 54 **종목·공공스포츠클럽 소식**
- 56 **부산체육 퀴즈**



16 부산체육인



20 부산체육인



30 Sports is Busan



30 Sports is Busan



34 푸른 바다, 큰 꿈



38 종목 소개



44 BSC 뉴스



54 종목·공공스포츠클럽 소식

## ◆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체육인 여러분



2026년 병오년의 붉은 태양처럼 뜨거운 열정과 도전으로 하나 되어 힘차게 도약하는 한 해를 만들어가길 소망하며 여러분의 일상에도 희망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지난 2025년은 부산체육의 위상과 가능성을 다시 한번 증명한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부산체육은 52년 만에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종합 2위라는 눈부신 성과를 달성하며 전국 최상위 체육도시로 우뚝 섰습니다. 또한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는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두며 부산 학교체육과 유소년 체육의 밝은 미래를 확인했습니다. 동계체육대회에서도 18년 연속 종합 5위라는 꾸준한 성과를 이어나가며 부산의 전문체육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생활체육 분야에서도 부산은 전국 생활체육 참여율 1위를 기록하며 시민의 일상 속 스포츠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은 도시로 평가받았습니다. 아울러 시·군·구 체육회 성과평가 전국 2위를 달성해 현장 중심의 체육 행정을 통해 생활체육 전국도시 부산으로서의 면모를 확실히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양정모 선수의 금메달이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된 것은 부산체육의 역사와 자긍심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의미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선수와 지도자, 동호인 등 체육 가족 여러분의 헌신과 부산 시민의 응원이 함께 만들어낸 소중한 결실입니다.

체육 가족 및 시민 여러분 우리는 이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앞날을 준비하려 합니다.

2026년은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를 통해 학교체육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키는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부산광역시체육회는 부산시와 교육청, 체육회가 긴밀히 협력하는 체육 생태계를 구축하여 미래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문체육의 경쟁력 강화와 생활체육의 지속적 확산을 동시에 추진해, 모든 시민이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에서 체육 활동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6년에도 부산체육은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체육도시로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부산광역시체육회 회장  
장인화

## ◆ 존경하는 부산체육 가족 여러분, 그리고 부산 시민 여러분

희망찬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힘차게 대지를 달리는 '붉은 말'의 해입니다. 붉은 말이 상징하는 열정과 강인한 기운을 받아, 올 한 해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뜻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부산체육은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학교체육과 장애인체육이 함께 어우러지며 한층 더 건강한 부산을 만드는 단단한 토대를 다졌습니다.

특히 25년 만에 우리 부산에서 개최된 제106회 전국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내며, 52년 만에 종합 2위 달성이라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부산체육의 저력을 보여줌과 동시에 부산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스포츠 도시'임을 안팎에 증명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현장에서 땀 흘린 체육인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과 시민 여러분의 성숙한 질서 의식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지면을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 체육인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2026년, 부산시는 선수와 지도자 등 모든 체육인이 존중받고, 안전한 환경에서 마음껏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권과 공정, 청렴이 살아 숨 쉬는 체육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동시에 부산 시민 누구나 집 가까운 곳에서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체육시설을 꾸준히 확충하여 시민의 삶 속에 스포츠가 스며드는 '스포츠 천국 도시'를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천혜의 해양 자원을 활용한 부산만의 특화된 스포츠 콘텐츠를 육성하여, 스포츠와 관광이 어우러지는 활기찬 도시 분위기를 조성하고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스포츠 관광 도시의 초석을 다지겠습니다.

부산체육의 빛나는 미래는 체육인 여러분의 땀방울과 시민 여러분의 관심 속에서 피어납니다. 새해에도 부산체육의 더 큰 도약을 위해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 시장  
박형준

## 체육이 부산을 이끄는 희망이 되길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올해는 스포츠의 상징과도 같은 말의 해로 지역 체육의 도약과 발전이 더욱 기대되는 한 해입니다. 속도와 기동력, 그리고 힘을 상징하는 말처럼 부산체육이 한층 더 힘차게 나아가길 응원하겠습니다.

지난해 부산은 전국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1973년 이후 52년 만에 종합 2위라는 값진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이는 부산체육의 저력과 가능성을 다시 한번 전국에 각인시킨 뜻깊은 성과였습니다. 아울러 도심 속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과 지방정부 최초의 체육국 신설 등, 체육 발전을 위해 기울인 지속적인 노력이 '스포츠 도시 부산'을 완성해 가는 든든한 기반이 되어 순항하고 있습니다. 소신과 헌신으로 이러한 성과를 이끌어 주고 계신 부산광역시체육회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에는 생활체육 시설과 프로그램이 더욱 갖춰져 시민들의 참여와 이용이 한층 더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하계 아시안게임과 동계올림픽이라는 스포츠 축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산 출신 선수들의 당당한 도전과 선전을 응원하며 스포츠로 하나 되는 감동의 순간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끽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새해에도 체육이 부산을 이끄는 희망의 에너지이자 시민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원동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안성민

## 부산체육의 도전이 대한민국 체육의 미래가 되길

새로운 도전과 힘찬 도약을 상징하는 붉은 말의 해,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부산체육 가족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건강과 활력이 넘치고, 희망이 가득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부산체육 발전과 스포츠 가치 확산을 위해 힘써주시는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님과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회원종목단체 및 구·군 체육회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지역 체육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산체육은 시민의 일상과 늘 함께해 왔습니다. 다양한 생활체육 기회를 넓히며 스포츠 복지를 강화해 가고 있으며, 지역과 연계한 학교체육 활동을 통해 체육 꿈나무를 육성하는 것은 물론 모든 아이가 건강하고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우리 부산은 체육인과 시민 모두가 하나 되어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와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 하였습니다. 부산 선수들의 뛰어난 활약은 부산을 넘어 대한민국 체육의 빛나는 미래를 열었고, 부산 곳곳에서 울려 퍼진 함성과 뜨거운 열기는 국민적 공감과 화합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쌓아온 값진 성과들을 발판으로 우리 부산체육은 새해에도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2026년 부산에서 열리는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와 제20회 전국장애학생 체육대회를 통해 부산체육의 저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고 '스포츠 도시 부산'의 위상을 한층 더 높여 줄 것입니다.

우리 부산광역시교육청도 부산체육이 향하는 도전과 성장의 길에 발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학교 체육을 활성화하고 학생 건강 증진에 힘을 쏟을 뿐만 아니라, 부산 시민 모두를 위한 체육문화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체육과 생활체육, 전문체육이 균형 있게 발전하며 건강한 체육 생태계를 만들어 가는 데 힘을 모으겠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체육회 소식지 『부산체육』이 시민과 체육 현장을 잇는 소통과 화합의 플랫폼으로 더욱 굳건히 자리매김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부산체육 가족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복된 새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김석준

## 2026 회원구·군체육회 회장



중구체육회 회장  
심재철

부산 체육인 여러분! 2026년 병오년 적마의 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웃음이 넘쳐나는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5년은 제106회 전국체전이 부산에서 개최되면서 52년 만에 종합 2위를 탈환하며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의 위상을 대외적으로 알렸습니다. 그간 갈고닦은 실력을 바탕으로 최고의 경기력을 펼치며 뜨거운 열정과 멈추지 않는 도전으로 과거를 거둬오셔서 개최지의 자긍심을 세우고, 부산 체육인들의 최대 축제인 부산시민체육대축전을 개최하여 부산 시민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전야제 및 체험부스, 대회장 관람 등을 통해 화합의 장을 구성하여 체육 활동 참여기회 및 체육인들의 저변 확대에 이바지하면서 누구나 찾고 싶은 문화관광매력도시, 생활체육천국도시 부산을 구현하는 데 성큼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산체육이 발전할 수 있었던 계기 또한 체육인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수없이 흘린 값진 땀방울로부터 시작될 수 있었던 노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북항 재개발 기반 시설이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의 해양 자원을 활용한 해양스포츠 확대와 시민 체감형 인프라 구축이 완화된 중구의 원도심 생활권 부활 및 도시 균형 발전에 기반을 마련하고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여 체육을 통해 모두가 하나 되는 모습을 기대해봅니다. 2026년 병오년 새해에는 불처럼 타오르는 강한 열정과 추진력을 갖고 출발하는 말처럼 건강하고 멋진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동구체육회 회장  
황현선

안녕하십니까.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는 어느 해보다도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전국체전 및 장애인 전국체전을 성황리에 마쳤고, 부산시민대축전 및 동구체육 회장배 대회 등 큰 행사를 우리 체육회 임직원들과 각 종목협회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 덕분에 잘 마무리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금년에도 우리 동구를 빛낼 수 있는 동구체육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북항시대 동구의 미래 비전과 발맞추어 우리 모두 파이팅 합시다.

병오년 새해 우리 체육인들의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구체육회 회장  
김용구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서구체육회 회장 김용구입니다.

희망찬 2026년 병오년(丙午年)을 맞아 시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부산체육 발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변함없는 지원을 보내주고 계신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부산체육은 전국체육 대회 종합 2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종합 3위라는 성과를 거두며 전국 무대에서 그 저력을 보여 주었습니다. 서구체육회는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목표로, 구민 누구나 체육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써 왔습니다. 특히 대한체육회장기 게이트볼대회에서 이홍중 협회장님이 이끄는 서구팀의 우승을 비롯해, 축구·태권도·파크골프·씨름·댄스스포츠 등 다양한 종목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26년에도 서구체육회는 구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체육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새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도구체육회 회장  
한영익

안녕하십니까, 영도구체육회 회장 한영익입니다.

2026년 새해를 맞아 희망찬 시작을 함께하며 이렇게 부산체육 소식지를 통해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기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체육인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 덕분에 부산체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큰 성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최선을 다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 그리고 스포츠를 통한 공동체 발전이라는 우리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체육인 모두가 지역 체육 활성화와 구민의 건강 증진에 앞장서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진구체육회 회장  
김석조

존경하는 36만 부산진구민 여러분, 그리고 부산체육을 이끌어가는 체육인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진구체육회 회장 김석조입니다.

어느덧 2025년 을사년(乙巳年) 푸른 뱀의 해가 지나고, 활력과 도약을 상징하는 2026년 붉은 말의 해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해를 맞이하여 여러분께 따뜻한 인사를 전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스포츠 복지’ 실현과 ‘건강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해 땀과 열정을 아끼지 않았던 부산의 모든 체육인 가족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부산진구체육회는 지난 한 해, 부산시민체육대축전에서 종합 2위라는 빛나는 성적을 거두어 우리 구의 위상을 크게 높였습니다. 특히, 부산진구에 최초로 조성된 ‘전포1배수지 파크골프장’을 지난 9월 성공적으로 개장하여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노년층 스포츠 복지를 실현하는 큰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구민들의 건강 증진과 화합을 위한 ‘백양산 숲길 걷기대회’, 활기찬 노년을 위한 ‘골드윙동경연대회’ 개최를 비롯하여 생활체육교실 확대 운영 등 다양한 대회와 행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이 모든 값진 성과는 체육인 가족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었음을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6년 병오년(丙午年)에는 ‘체육으로 하나 되는 부산진구’라는 비전을 가지고, 선진적인 체육 시스템을 정립하고 모든 구민이 안전하게 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특히, 체육인들의 전문성 강화와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구민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붉은 말은 용기와 역동성, 그리고 강한 추진력을 상징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가 다져온 견고한 기반 위에서, 2026년에는 더욱 역동적인 힘으로 새로운 목표를 향해 힘차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동래구체육회 회장  
정길호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래구 체육 동호인 여러분!

병오년(丙午年)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며,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생활체육 발전을 위해 애써 오신 모든 체육 가족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6년에도 스포츠가 구민 여러분께 기쁨과 감동을 전할 수 있도록 동래구체육회는 생활체육 지원과 구민 참여 체육행사를 통해 화합과 활력이 넘치는 동래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동래구 체육 가족 여러분!

건강한 100세 시대는 스포츠 복지정책으로 시작됩니다. 구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쉽게 운동을 즐기며 스포츠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래구는 부산체육의 중심으로 현재 25개 회원종목단체, 304개 클럽, 1만 5천여 명의 구민이 생활체육을 즐기고 있으며, 동래구국민체육센터 수탁 운영을 통해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스포츠를 통해 구민이 소통하고 화합하는 건강한 동래, 더욱 발전하는 동래구체육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체육인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구체육회 회장  
정춘식

사랑하는 부산 체육인 및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구체육회 회장 정춘식입니다. 물러가는 한 해를 뒤로하고 희망찬 2026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부산체육 소식지를 사랑해 주시는 체육 가족 여러분께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부산체육 발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주신 체육인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 부산체육은 더욱 단단해지고, 시민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2026년은 체육이 단순한 활동을 넘어 시민의 일상이 되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중심 역할을 해야 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남구체육회는 앞으로도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 환경 조성, 유소년부터 어르신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맞춤형 체육 프로그램 확대 그리고 현장 중심의 소통과 지원을 통해 체육인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체육 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체육 행정을 실현하고, 부산체육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책임 있게 나아가겠습니다.

새해에도 부산체육 가족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2026년에도 부산체육의 든든한 동반자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북구체육회 회장  
김성호

북구 체육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구체육회장 김성호입니다.

지난 한 해,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과 헌신 덕분에 우리 체육회는 더욱 활기차고 건강한 공동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노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6년은 붉은 불의 기운을 담은 ‘병오년’, 곧 ‘붉은 말의 해’입니다. 말처럼 힘차고 빠르게 달려 나가는 기운이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과 성장의 기회를 선사할 것입니다. 이 활기찬 기운을 모아 북구체육회의 발전과 주민 건강 증진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올해도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과 활발한 교류를 통해 구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며 힘찬 도약의 한 해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희망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해운대구체육회 회장  
박영곤

사랑하는 체육인 및 가족 여러분! 해운대구체육회 회장 박영곤입니다.  
 희망과 도약의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아, 체육인 여러분과 가족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님을 비롯한 체육회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현장에서  
 묵묵히 땀 흘려주신 모든 체육인 여러분께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올사년이 새로운  
 출발을 위해 기초를 다진 해였다면, 병오년인 2026년은 그 성과를 바탕으로 힘차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해운대구체육회는 구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라는 본래의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하며,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이 조화롭게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체육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모두가 함께하는 체육, 일상 속의 체육’을 핵심 목표로 삼아, 연령과 성별, 계층을 넘어 모든 구민이 언제  
 어디서나 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참여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활력과 전진을 상징하는  
 병오년의 기운을 받아, 지역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하고, 건강한 구민, 역동적인 해운대를 만들어 가는  
 데 앞장서 체육이 곧 문화이자 복지가 되는 도시, 체육을 통해 행복이 확산되는 해운대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새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체육인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건강과 보람,  
 그리고 더 큰 성취가 함께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하구체육회 회장  
이영수

존경하는 사하구 체육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하구체육회 회장 이영수입니다.  
 희망찬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사하구 체육인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사하구체육회에 보내주신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깊은 관심 덕분에  
 눈부신 발전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2026년 사하구체육회는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 환경을 조성하고, 종목별 균형 있는  
 지원을 통해 체육 저변을 더욱 확대해 세대와 계층을 잇고 ‘건강한 일상’이 일상이 되는 ‘더 건강한 사하,  
 더 활력 있는 사하’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하구 체육인 여러분, 새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가정에 늘 웃음꽃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금정구체육회 회장  
최규원

존경하는 금정 체육 가족 여러분!  
 희망찬 2026년 병오년, 말띠해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체육회는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와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기는 체육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려왔습니다.  
 그 모든 성과는 현장에서 묵묵히 땀 흘려주신 지도자와 늘 함께해 주신 체육 동호인 여러분 덕분입니다.  
 체육은 기록을 넘어 사람을 잇고, 경쟁을 넘어 화합을 이루는 힘이 있습니다.  
 2026년 병오년 말처럼 힘차게 달리되 서로를 배려하며 함께 가는 체육이 되도록 여러분과 늘 소통하며  
 현장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새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일상에 건강한 웃음과 활력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강서구체육회 회장  
김재업

존경하는 강서구 체육인 가족 여러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6년은 병오년  
 붉은 말의 해로 불의 기운이 두 번 겹쳐 열정과 활력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말처럼 힘차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강서구 체육인들은 각종 대회와 현장에서 땀과 열정으로 스포츠의 가치를 증명해  
 왔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임원, 동호인, 지도자, 내외빈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해 주신 덕분에  
 우리 강서구체육회는 스포츠 메카도시 강서구의 선도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은 체육의 본질인 공정과 도전, 화합과 발전의 가치를 더욱 굳건히 다져 나가 스포츠 메카 도시,  
 강서구 선도에서 생활체육이 균형 있게 발전하고, 모든 구민이 생활체육을 통해 건강과 행복,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체육회의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무국 운영과 회원단체 관리와  
 지원에 투명성을 더하고 체육 환경이 개선·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강서체육의 미래를 위한 인재 발굴과 체육시설 기반 확충과 회원단체 활성화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는 체육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스포츠가 세대와 계층을  
 잇는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2026년 병오년 새해에도 강서체육 가족  
 여러분의 변함없는 열정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모두가 하나 되어 더 건강하고 활기찬 체육의 내일을  
 만들어 가기를 기대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연제구체육회 회장  
김진근

안녕하십니까? 연제구체육회장 김진근입니다. 존경하는 체육 가족 여러분께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병오년은 예로부터 도전과 도전, 그리고 힘찬 도약을 상징하는 해입니다. 이러한 의미처럼, 2026년은 우리 연제구체육회가 지난 성과를 토대로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뜻깊은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연제구체육회는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체육 발전을 위한 기본 가치에 충실하며,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이는 현장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 주신 지도자와 체육회 임직원과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 덕분입니다.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6년에도 우리 연제구체육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체육 행정을 바탕으로 안전한 체육 환경을 조성하고, 미래 체육 인재 육성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 누구나 체육을 통해 건강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체육이 공동체의 화합과 신뢰를 이끄는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병오년의 힘찬 기운처럼, 우리 연제구체육회는 멈추지 않고 현장과 함께 호흡하며 지속 가능한 체육 발전을 향해 성실히 나아가겠습니다. 새해에도 체육 가족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상구체육회 회장  
강진태

존경하는 사상구민 여러분, 그리고 체육 가족 여러분. 희망찬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지난 한 해 사상구체육회는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전문체육 경쟁력 강화, 그리고 구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체육 환경 조성을 목표로 심 없이 달려왔습니다. 종목별 협회와 지도자, 동호인 여러분의 헌신 덕분에 각종 대회와 생활체육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었고, 구민 참여율 또한 꾸준히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26년 사상구체육회는 다음 세 가지 방향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첫째, 생활체육의 일상화입니다. 연령과 성별, 체력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체육이 곧 건강한 삶의 기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유소년·청소년 체육 육성입니다. 학교·지역과 연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 사상 체육을 이끌 인재를 발굴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투명하고 신뢰받는 체육회 운영입니다. 공정한 행정과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통해 구민과 체육인 모두에게 신뢰받는 조직으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체육대회와 스포츠 이벤트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화합에도 기여하는 체육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체육은 단순한 활동을 넘어 사람과 사람을 잇고, 지역의 힘을 키우는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사상구체육회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구민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는 체육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도 건강한 몸, 건강한 마음으로 체육과 함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희망과 도약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영구체육회 회장  
황대성

존경하는 수영구민 여러분! 그리고 체육회 임원 및 동호인 가족 여러분! 희망과 도약의 에너지가 가득한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지난해 베풀어 주신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그리고 모두의 헌신 덕분에 생활체육 활성화와 지역 스포츠 기반 확충에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6년 새해에도 수영구체육회는 희망을 품고 움직이는 체육, 모두가 함께 빛나는 수영구를 만들기 위해 더욱 힘차게 뛰겠습니다.

구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 환경 인프라를 확대하고, 생활체육을 통하여 건강과 행복을 키우며, 스포츠를 매개로 소통과 화합의 장을 넓혀 모두의 일상 속에서 체육이 기쁨이 되고, 삶에 희망을 더하는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새해,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웃음이 가득하고 새로운 도전마다 좋은 결실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기장군체육회 회장  
최상철

희망찬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며 기장군 및 부산광역시 체육 발전을 위해 뜨거운 열정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도전과 변화 속에서도 굳건히 자리를 지켜주신 체육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가 있었기에 우리 체육의 미래는 더욱 밝게 빛날 것입니다.

새해에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쌓아 올린 견고한 토대 위에 더 큰 꿈을 펼치고자 합니다. 우리 체육인들이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어, 나눔과 봉사의 정신으로 선한 영향력을 더욱 넓혀 나갈 것입니다. 특히, 미래 체육의 주역이 될 유소년 인재들의 잠재력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며,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자가 되겠습니다.

기장군체육회는 앞으로도 군민 여러분의 삶 속에 스포츠가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다채로운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데 더욱 힘쓸 것입니다.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건강한 스포츠 문화를 조성하여, 군민 모두가 활기차고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체육을 통해 얻는 작은 성취와 기쁨들이 군민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도록, 저희는 항상 여러분 곁에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올 한 해도 체육 가족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스키 도시 부산을 향한 열정과 도전

부산광역시스키스노보드협회 **박재영** 회장

부산은 동계스포츠 불모지라는 말도 있지만 이젠 다르다. 지금 부산은 스키 도시로서 더 높이 도약 중이다. 그 중심에는 부산광역시스키스노보드협회 박재영 회장이 있다. 누구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선수 중심' 협회 운영을 책임지는 그를 만나보았다.

## 동계스포츠 불모지에서 이룬 기적의 시작

눈이 내리지 않는 해안 도시에서 스키 선수를 키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부산광역시스키스노보드협회는 1974년 설립 이후 50년간 끊임없이 노력해 왔고, 그 결과는 놀랍다. 2025년 제106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부산이 획득한 매달 47개 중 무려 41개를 스키 종목이 차지하며 18년 연속 종합 5위 달성에 크게 기여했다.

이러한 성과 뒤에는 박재영 회장의 헌신과 리더십이 있었다. 38년 차 스키어이자 33년 차 스노보더인 그는 2024년 6월 부산광역시스키스노보드협회 제14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10살 무렵 용평 스키장에서 처음 스키를 접한 후, 겨울 스포츠와 평생을 함께해온 그에게 협회 운영은 직책 그 이상의 자리다.

“4대 회장님이 부친 친구셨습니다. 덕분에 어릴 적 스키를 접할 기회가 많았죠. 부산에서 새벽 5시 반에 출발해 늦은 오후가 되면 용평에 도착했어요. 거리상 지칠 법도 한데, 스키를 탄다는 것 하나만으로 너무 즐거웠습니다.”

리프트를 타고 내리다 넘어지고 눈밭에서 구르길 열댓 번, 그렇게 자연스럽게 스키를 익혔다. 더 나아가 5학년 때는 삼촌이 가져온 스노보드의 매력에 빠져 중학교 2학년 때 무주 리조트에서 처음 스노보드를 탔다. 코가 부러지고 허리 부상을 당하는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짜릿한 겨울 스포츠의 매력에 푹 빠진 박재영 회장은 설원 스포츠를 포기할 수 없었다. 그 후 매년 겨울이 오면 어김없이 스키장을 찾았다.

**다시, 협회 정상화와 혁신적 운영**

취임 초기, 박재영 회장이 마주한 현실은 녹록치 않았다. 코로나 이후 파행 운영으로 협회 재정이 악화되었고, 때문에 작년 초 부산시장배, 교육감배, 스키스노보드협회장배 대회 준비는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시청, 교육청, 체육회, 협회 이사들과 스키를 사랑하는 많은 이들의 도움으로 모든 대회를 무사히 마쳤다.

박재영 회장의 경영 마인드는 협회 운영에서도 빛을 발한다. 대회 포스터 제작을 최소한으로 하고 QR코드와 시를 활용해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다.

“요즘 부모님들도 포스터 들고 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 시에서도 대회 관련 소식을 QR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걸 선호합니다. 이렇게 절감한 비용은 훈련 경비와 장학금으로 선수 지원에 힘쓰는 것이 사기 증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답게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운영비가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도록 살피는 데서 그의 세심한 협회 운영 방식이 돋보였다.

**2026년 핵심 과제와 선수 중심 철학**

“부산은 타 시·도에 비해 선수층이 두텁지 않고 참가 인원도 많은 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지난 제106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부산이 획득한 47개 메달 중 41개를 저희 협회가 차지했습니다. 이에 계속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크지만, 다가오는 107회 대회에서도 종합 5위 이상의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월 제107회 전국동계체육대회를 앞두고 부산 스키팀은 강원도에서 합숙 훈련 중이다. 일부 선수들은 이미 여름-가을 전지훈련을 마쳤고, 해외 전지훈련 및 FIS 대회 참가 선수들도 귀국 즉시 체전 대비 훈련에 합류할 예정이다.

“가장 중요한 과제는 선수층 확대입니다. 취임 당시 말했던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이어지는 스키부 창단이 핵심 목표예요.”

2026년 협회의 핵심 추진 과제는 선수층 확대다. 취임 후 파악한 협회 내부 사정으로 인해 현재는 협회 정상화에 집중하고 있어 목표했던 스키부 창단이 계획만큼 빠르게 진행되지는 못했

지만, 임기 내 창단을 위해 노력 중이다. 또한 초등학생 대상 스키 캠프 운영과 각종 대회 참가를 통해 겨울 스포츠의 매력을 널리 알리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선수들이 웃으면서 운동해야 그에 따른 결과도 잘 나옵니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잘 먹고, 잘 자고 스트레스 없이 오로지 운동에만 집중해야죠.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재영 회장의 교육·운영 철학은 명확하다. 대회 개막식에서 선수들에게 항상 부상이 없어야 함을 강조한다. 기록도 중요하지만 다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다. 여기에는 협회 회장인 동시에 ‘스키 꿈나무’ 아들을 둔 학부모의 마음이 묻어났다.

박재영 회장은 현재 중국 완룽에서 전지훈련 중인 아들이 슬럼프를 겪고 있는 것 같이라며 애정 어린 말을 전했다. 영하 30~40도의 혹한 속에서 훈련하며 “그만두고 싶다”고 말하는 아들에게 박재영 회장은 무조건적 지지 대신 방향을 설정해주려 한다.

“스키는 몸의 좌우를 모두 쓰는 운동이라 균형 감각이 중요한 종목입니다. 자전거 타는 방법을 평생 잊어버리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슬럼프는 넘어가야 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제 아들을 비롯해 슬럼프가 온 선수들 모두 조금 쉬었다가 다시 시작해도 운동감각은 잊혀지는 게 아니니까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진인사대천명,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늘에**

박재영 회장의 삶의 태도는 가훈인 ‘진인사대천명’으로 요약된다. 이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늘에 맡긴다는 뜻이다. 작년 9월, 자전거를 타다 말벌에 쏘이는 바람에 쇠골이 부러지는 큰 사고를 당했지만, 그는 이를 ‘잠시 쉬어가라는 신호’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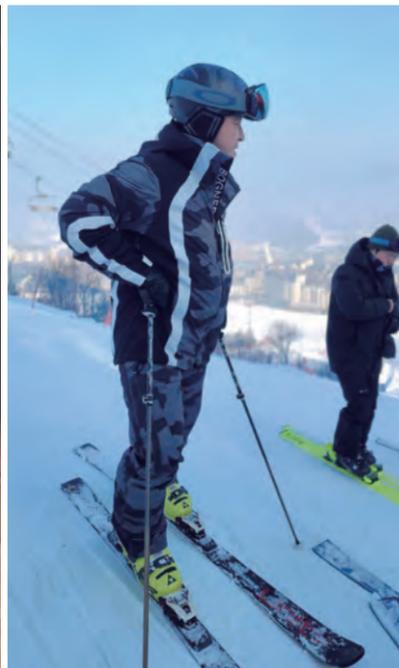


받아들이고 전환점으로 삼았다.

“진인사대천명,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늘에 맡기는 게 가훈입니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면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승복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제 삶의 태도이자 좌우명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고 있지만, 뜻하는 좋은 결과는 이제 하늘에 맡겨야죠.”

지금까지 잘해온 만큼 앞으로도 더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은 분명 크다. 하지만 박재영 회장은 선수들을 믿는다.

동계 스포츠와는 어울리지 않는 도시였던 부산을 ‘스키 도시’로 만들어가는 박재영 회장의 노력은 계속된다. 협회 정상화, 선수층 확대, 시설 인프라 구축이라는 과제들이 기다리고 있지만, 38년간 스키와 함께해온 그의 열정과 헌신, 그리고 ‘진인사대천명’의 철학이 있는 한 부산 스키의 미래는 밝다.



## 2025년 부산광역시체육회에 입사한 새로운 얼굴이 나누는 소회 신입사원 4인 소개

2025년, 부산광역시체육회 사무실에 새로운 얼굴들이 출근했다. 나이도 개성도 저마다 다른 4명의 신입사원들이지만, 체육을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같다. 입사 첫해를 마무리하고 2026년 새해를 맞이하는 그들의 각오와 계획을 들어보자.



### Q.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종목육성부 반진욱이라고 합니다. 입사 이전엔 부산대학교에서 스포츠과학을 전공하고 부산아이파크 축구단에서 유소년 지도자 생활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 체육계에 종사하면서 행정가로 이루고 싶은 바가 생겨 2025년 채용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 Q. 종목육성부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본인의 맡은 업무는?

종목육성부는 생활체육 및 회원종목단체와 관련된 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봄에 열리는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을 담

당하는 부서로서 부산 시민이 더 좋은 환경에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학교스포츠클럽대회, 클럽대학 청소년 체육대회와 같이 학교체육과 관련된 대회와 회원종목단체의 전국대회 참가 지원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 Q. 입사 초, 적응을 도와준 멘토가 있나요?

한 명을 꼽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 부서의 윤미숙 부장님을 비롯해서 김민영 과장님과 이진호 대리님 모두 업무에 관해 자세히 알려주시고 제가 실수했을 때엔 격려해 주신 덕에 첫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Q. 우리 부서의 자랑거리는?

현장에서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사 전부터 현장에서 주로 일을 한 덕분에 현장업무의 중요성에 대해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참가자의 의견을 가까이서 듣고 항상 현장의 관점에서 행정력을 발휘하는 게 더 나은 스포츠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배속된 부서는 제 성향과도 잘 맞는 것 같습니다.

### Q. 앞으로 체육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은가요?

2025년이 적응기였다면 2026년부터는 제가 맡은 사업을 성공적으로 치르는 성숙기에 진입했으면 합니다. 지난 9개월간 배운 것들을 담당 업무에 녹여내고 싶습니다. 나아가 누군가의 인생에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사람, '저 사람만큼 하고 싶다'하는 문장에서 '저 사람'이 되는 게 목표입니다.

누군가의 롤모델이 되고 싶습니다.



종목육성부 반진욱

신뢰할 수 있는 구성원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무부 이상현



### Q.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총무부 이상현입니다. 학창시절부터 스포츠 활동을 꾸준히 해오다 보니 자연스럽게 체육행정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작년 6월까지 장교로 복무하다 2025년 부산광역시체육회에 입사하게 됐습니다. 스포츠 현장이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행정가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보다 좋은 체육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기여하고 싶습니다.

### Q. 총무부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본인의 맡은 업무는?

총무부는 체육회 전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업무계획 총괄, 예산 편성, 회계 관리 등 행정 업무를 총괄합니다. 저는 그중 지출 관련 업무와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주로 맡고 있습니다.

### Q. 입사 초, 적응을 도와준 멘토가 있나요?

입사 초에는 박찬우 대리님과 박혜진 주임님께서 적응을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업무적으로나 업무 외적으로 의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서 즐겁게 회사생활 하고 있습니다.

Q. 우리 부서의 자랑거리는?

밝고 협력적인 팀 분위기를 자랑하고 싶습니다. 구성원 모두가 서로 존중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문화가 자리잡은 덕분에 업무 곳곳에서 자연스럽게 상승 효과를 발휘하고 있어요. 선후배 간 소통이 원활해서 새로운 업무가 생기거나 어려운 상황에 마주했을 때도 부담 없이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팀 전체의 성과 향상에도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Q. 앞으로 체육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은가요?

제가 체육회에서 이루고 싶은 건 '신뢰 받는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 팀의 업무에 머무르지 않고 체육회 전체가 어떤 구조로 움직이고 협업하는지 파악해서 한 차원 높은 곳에서 기여하고 싶습니다. 작은 업무라도 성실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사람, 그래서 안정감을 느끼고 믿음직한 사람이 되는 것 역시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꾸준히 배우고 소통하며 체육회 발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전문성 갖춘  
등직한 팀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부  
하승지

Q.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부 하승지입니다. 저는 다른 동기들과 달리 체육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어릴 때부터 운동을 좋아했습니다.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 같은 대회가 열리면 우리 선수들 경기는 물론 다양한 종목의 중계를 챙겨볼 정도였어요. 그러던 중 부산광역시 체육회 채용 공고를 보게 됐고, 평소 좋아하던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입사지원하게 됐습니다.

Q. 체육진흥부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본인의 맡은 업무는?

체육진흥부는 부산의 전문체육을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부서로 전국체육대회, 소년체육대회, 동·하계 대회 참가 준비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선수·지도자 지원, 실업팀과 학교 운동부 운영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챙기는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저는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 자료 정리, 선수·지도자 지원 행정 등 대회 기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Q. 입사 초, 적응을 도와준 멘토가 있나요?

부서 선배들 모두가 좋은 분들이지만 입사 초 가장 큰 도움을 주신 분은 김휘창 주임님입니다. 처음엔 실수도 많이 했는데, 그럴 때마다 저를 격려해주셨어요. 덕분에 입사 초 적응을 잘할 수 있었고 지금은 저 스스로를 '휘주(휘창 주니어)'라고 칭할 만큼 주임님을 잘 따르고 있어요. '미워한 사람은 잊혀지지만 고마운 사람은 오래 기억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제게 김휘창 주임님이 그런 존재입니다. 첫 사수로 만나 행운이고, 언젠가 후배가 생기면 제가 김휘창 주임님께 받은 그대로 베풀겠습니다.

Q. 우리 부서의 자랑거리는?

우리 부서가 업무량이 많은 편이라 힘들 때도 많지만 서로 힘을 보태는 문화가 정착한 덕분에 즐겁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은 전국체육대회를 앞두고 단복 납품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었는데, 외근 중인 저를 대신해서 과장님 이하 동료 직원분들이 업무를 분담해 문제를 해결해주셨어요. 마치 미리 계획을 했던 일인 양 능숙하게 처리해 주시는 모습을 보고 '어떤 문제가 생겨도 우리 팀이 함께라면 다 해결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Q. 앞으로 체육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은가요?

우선은 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제 역할이 작지만 조금씩 배우고 전문성을 쌓아가다 보면 언젠가 등직한 구성원이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Q.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산광역시체육회의 막내, 공정기획감사부 양주현입니다. 현재 부산대학교 스포츠과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고 어릴 때 태권도와 체대입시를 경험하며 자연스럽게 체육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본격적으로 체육행정 분야에서 일하게 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고 앞으로도 부산체육 발전에 도움이 되는 구성원이 되고 싶습니다.

Q. 공정기획감사부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본인의 맡은 업무는?  
공정기획감사부는 공정하고 청렴한 스포츠 환경 조성과 건강한 체육문화를 위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공정위원회 운영, 종목단체 지도·감사를 주로 하고 저는 스포츠 인권 업무를 담당하며 정기적인 인권침해 실태조사와 관련 규정 적용, 회원단체 포상자 선정 등의 실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Q. 입사 초, 적응을 도와준 멘토가 있나요?

공정기획감사부의 부서원 전부가 저의 멘토라고 생각합니다. 부산광역시체육회가 저에게는 첫 직장이라 긴장을 많이 했는데, 부서원분들이 업무도 많이 도와주시고 조직 내에서 소통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어요. 덕분에 현재까지 잘 적응하고 있고 보다 주도적으로 업무를 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Q. 우리 부서의 자랑거리는?

우리 부서의 가장 큰 강점은 가족 같은 분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 인원이 적어서인지 유독 관계가 끈끈하다고 생각해요.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바탕으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협력과 성장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보다 좋은 스포츠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Q. 앞으로 체육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은가요?

가까운 목표는 현재 맡고 있는 업무를 더 깊이 이해하고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는 것입니다. 아직 배우는 단계이지만, 차근차근 경험을 쌓으며 부서에 기여할 수 있는 구성원이 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체육행정 전반을 폭넓게 이해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좋은 환경에서 스포츠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 2026 부산광역시체육회 비전과 목표

부산광역시체육회는 2026년을 '투명·공정 거버넌스'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해로 삼았다. 학교체육과 전문체육의 연계를 강화하고, 생활체육을 중심으로 시민 참여 기반을 넓히며 국제교류를 본격 확대한다. 후원기업 유치와 감사·인권체계 정비 등 내부 혁신을 바탕으로 학교운동부와 꿈나무 육성, 실업팀 고도화, 전국대회 대비, 스포츠클럽·미디어 강화, 국제 청소년 교류까지 실행 전략을 분명히 했다.



BUSAN SPORTS COUNCIL

## 투명경영·공정운영으로 '신뢰 체육행정' 구축



부산광역시체육회는 2026년의 주요 과제로 투명한 경영과 공정한 운영체계 확립을 내세웠다. '부산광역시체육회 후원 기업 유치' 사업을 통해 체육회의 유·무형 자산과 지적재산권을 활용하고,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해 부산체육 진흥의 기반을 다진다는 계획이다. 후원 대상은 부산 지역 향토기업과 은행, 병원 등이며, 체육회는 후원권자·상품화권자 판매와 함께 소식지, 온라인 콘텐츠, 홈페이지 등 자체 미디어를 활용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공익적 가치를 자연스럽게 연결할 방침이다. 후원 참여 기업에는 등급에 따라 차등화된 혜택이 제공된다. '공식파트너(5천만 원 이상)', '공식스폰서(3천만~5천만 원)', '공식공급사(1천만~3천만 원)'로 구분해 대회 연계 마

케팅, 브랜드 노출, 체육회 휘장·명칭 사용권 등을 제공한다. 체육회는 이를 통해 재정 자립도를 높이는 동시에, 후원사에는 실질적인 홍보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목표다.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관행 개선과 감사기능 강화도 병행된다. 회원단체의 회계부정이나 문서위조 등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정기감사를 통해 운영 실태 점검과 지도·관리 기능을 강화한다. 특히 수의계약 기준 정비와 '수의계약 총량제' 도입으로 특정업체 편중 계약을 차단하고, 회원단체 평가를 통해 행정력과 부산체육 전반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한다. 일반·일상·특별감사를 연간 체계로 운영하며, 보조금 정산을 넘어 내부통제 수준을 한층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 인권보호 체계 정립, '클린스포츠' 실행력 강화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스포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자 보호 중심의 대응체계를 구축해 '클린스포츠'를 실현하기로 했다. 인권침해 실태조사와 캠페인을 통해 인식을 개선하고, 사건 발생 시 가해자 분리 등 즉각적인 조치와 우선 징계 규정을 적극 활용해 2차 피해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스포츠윤리센터와 연계한 신고 및 후속 지원 절차도 함께 운영해 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높인다. 구·군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실태조사도 실시한다. 2026년 12월, 16개 구·군체육회 지도자를 대상으

로 설문조사와 개별 면담을 진행하고, (성)폭력 관련 사안이 확인될 경우 해당 체육회 조사와 행정 조치까지 검토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사무처 운영의 투명성도 함께 높인다는 취지다. 행정 기반이 취약한 종목단체를 위한 '회원종목단체 통합사무실 운영'도 추진된다. 행정직원과 사무공간이 없는 단체를 대상으로 인건비와 사무국 운영비를 지원해 기본 행정력을 보강한다. 체육회는 이를 통해 종목단체가 본연의 종목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단체 간 행정업무 공유로 업무 효율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회원단체 역량 강화, '현장 행정력' 업그레이드



회원단체의 신뢰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지도점검과 직무연수도 이어진다. 2026년 3~8월, 25개 단체(구·군체육회 6, 회원종목단체 19)를 대상으로 조직 운영과 예산 집행 전반을 점검하고,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와 필요시 특정감사를 실시한다. 반복적인 부적정 단체는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차년도 지원사업과 연계 관리할 방침이다.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회원단체 직무연수'는 3월 중 체육회 관 회의실에서 진행된다. 회계, 지원금 지침과 정산, 체육회

사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기초 행정 실무를 중심으로 교육보조금 집행 역량을 높이고, 단체 간 정보 교류와 협력 분위기도 함께 조성한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와 교육도 지속된다. 16개 구·군체육회에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고, 7월 교육을 통해 지도력과 서비스 품질을 끌어올린다. 체육회는 이를 통해 '현장으로 찾아가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역 체육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 실업팀 운영 고도화, 청렴·인권·재능기부까지



엘리트 선수 육성의 핵심은 실업팀 운영의 고도화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실업팀은 18개 종목 18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시직장운동경기부는 6개 종목 7개 팀을 수탁 운영하고 있다. 체육회는 우수선수 영입과 체계적인 훈련·대회 출전 지원을 통해 경기력 향상을 뒷받침하는 한편, 스포츠 4대악과 인권침해에 대한 전수조사를 연 2회 정례화하고, 연수회와 교육을 통해 청렴문화를 확산해 나간다. 특히 (성)폭력 예방과 선수 인권보호, 도핑 방지, 안전교육, 스포츠심리 등 다양한 교육을 통해 지도자와 선수의 역량과 인식을 함께 높인다. 고충상담창구를 연중 운영해 현장의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히 대응하는 체계도 유지한다. 이와 함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재능기부 강습과 멘토링(근대 5종·레슬링·사격·요트·펜싱·체조 등)을 확대해 실업팀의 공

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높인다. 2026년에는 지도자 처우 개선(연가보상비 신설 등)과 더불어 궁도, 태권도(남) 실업팀 창단도 예고됐다. 지역 실업팀에 대한 지원 역시 한층 강화된다. 낮은 연봉체제로 우수선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보완하기 위해 연봉 보전 성격의 재정 지원과 성과 연동형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 부산 연고 실업팀과의 유대 강화 및 훈련비 지원으로 경기력 기반을 두텁게 한다. 아울러 구·군청과 기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실업팀 창단과 이관을 추진하고, 기업 전액(일부 부담, 매칭펀드, 1기업 1선수 후원, 브랜드 마케팅 등 다양한 모델을 제시해 '지역사회 공헌'과 '엘리트체육 활성화'를 자연스럽게 연결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 학교체육부터 꿈나무까지, 경기력 기반 다진다



학교체육과 전문체육의 연결을 강화해 경기력 향상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만드는 것 역시 2026년 부산체육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다. 학교운동부 경기지도자 지원에는 28개교 53명(고등학교 41명, 대학 10명, 종목단체 2명)의 지도자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학교운동부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우수선수 발굴과 전국체전 성적 향상을 동시에 도모한다. 고등·대학 운동부 육성 지원은 불참종목 해소와 성적 우수팀 지원, 고사 위기에 놓인 학교운동부에 대한 정책적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정책종목 육성지원과 다수팀 육성학교 지원, 선수단체 종목 성과지원, 팀 창단 지원 등을 통해 지역 유망선

수의 역외 유출을 막고, 고등·대학·일반으로 이어지는 연계 육성 시스템을 한층 탄탄히 다진다는 구상이다.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체육 꿈나무' 육성도 함께 추진된다. 꿈나무 선수와 팀을 지원하고 장학금을 확대해 동기부여와 경기력 향상을 돕는 한편, 취약계층 우수선수 장학금 지원을 강화해 스포츠복지와 평등한 참여 여건도 함께 넓힌다. 학생스포츠클럽 육성은 비등록 학생선수가 참여할 수 있는 대회 개최와 스포츠클럽 확대를 통해 자발적인 참여 기반을 다지고,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을 잇는 또 하나의 통로 역할을 맡는다.

## 전국체전·소년체전 대비, '대회 경쟁력' 강화



부산은 2026년 전국 단위 종합체육대회 참가와 개최를 통해 전문체육의 저변을 넓히고 지역체육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구상이다. 제107회 전국동계체육대회(2월)를 시작으로 전국생활체육대축전(4월, 김해),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5월, 부산), 제107회 전국체육대회(10월, 제주) 참가를 차렷로 준비하며, 전지훈련비와 출전비, 강화훈련비, 장비 지원을 통해 선수단의 준비 과정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한다. 강화훈련비는 56개 종목 1,250명을 대상으로 지원되며, 고가 장비와 임차료 등 장비 지원도 함께 이뤄진다. 7~9월에는 강화훈련 현장 점검과 격려를 통해 선수단 컨디션을 세심하게 관리하고, 결단식과 해단식도 진행할 예정이다. 대회 운영을 위한 기반 정비도 병행된다. 1~7월 동안 40개

종목 경기장의 공·승인과 경기용 기구 확보를 추진하고, 시설관리단체와의 협의, 중앙종목단체 자문과 현장 답사, 교육청 체육시설 사용 협조 등을 통해 최적의 경기 환경을 조성한다. 대회 종료 이후에는 경기용 기구의 활용과 관리 이관까지 검토해 '대회 이후'까지 이어지는 유산 활용도 함께 염두에 두고 있다. 특히 2026년 부산에서 열리는 전국소년체육대회는 종목단체 운영비와 운영(보조)요원 보상비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개최 여건을 마련한다. 종목별 담당관을 구성해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보조금 시스템 사용 등 집체교육을 실시해 대회 운영의 전문성과 안전 대응 능력을 한층 끌어올릴 계획이다.

## 생활체육 일상화, 시민참여 대회 확대



부산광역시체육회의 또 다른 과제는 생활체육과 지역 스포츠클럽 중심의 '시민체육 생태계' 활성화다. 체육회는 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생애주기별 프로그램을 통해 '일생형 체육활동'을 지원한다. 유아기에는 유아시설 체육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청소년기에는 주말 스포츠레저와 청소년 대회(스포츠타마당·클럽대항 대회)를 확대한다. 성년기에는 부산시민체육대축전 등 대규모 참여형 대회를 중심으로 생활체육의 장을 넓히고, 노년기에는 어르신 맞춤형 프로그램과 게이트볼 대회 등을 통해 건강한 노후를 지원한다.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한 상설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탁구·배드민턴 등 생활체육교실과 새벽·저녁 시간대 야외광장을 활용한 '해·달맞이'를 추진한다. 달리기 수요를 겨냥한 '달려라부산'과, 광안리·시민공원·송도 등 명소에서 진행하는 야간 프로그램 '달밤에체조 부산'도 마련해 '운동하는 부산'의 일상 풍경을 확대한다.

## '생활-학교-전문' 선순환 기반 강화



지역 스포츠클럽 육성은 생활체육의 품질을 높이는 동시에 전문선수 발굴 체계를 넓히는 중요한 연결고리다. 부산은 지정 스포츠클럽 9개를 중심으로 특화사업과 선수육성 사업을 지원하고, 스포츠클럽법 시행 흐름에 맞춰 클럽 확대와 단계적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 전문선수반 운영을 통해 선수 저변을 넓히고, 학교·생활·전문체육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공공체육시설 수탁 운영을 통해 시민 체육서비스의 품질도 함께 끌어올린다. 체육회는 위·수탁 협약에 따른 독립채산제 운영으로 시설별 운영 수지를 안정화하고, 노후시설 개·보수를 통해 이용 여건과 안전성을 개선한다. 수탁시설은 부산체육회관을 비롯해 국민체육센터(부산·북구·강서구), 부산종합실내테니스장, 부산실내빙상장, 종합실내훈련장, 신평장림체육관 등으로, 체육회는 그간 축적해 온 운영 노하우를 바

탕으로 공익성과 수익성의 균형을 강조하고 있다. 종합실내훈련장은 검도·레슬링·복싱·유도·태권도 등 부산대표 선수단의 핵심 훈련 거점으로 활용된다. 10개 전용훈련장 운영비 지원을 통해 시설 유지·보수 여건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훈련 환경을 뒷받침한다. 체육회관은 국제경기대회기념전시관 운영과 함께 헬스·배드민턴·어린이농구·태권도 등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스포츠과학센터와 연계한 체험형 콘텐츠로 운영 활성화를 꾀한다.

스포츠과학센터와 스포츠헬스케어센터는 전문선수 지원의 질을 높이는 또 하나의 거점이다. 체력측정과 운동처방, 종목별 밀착, 스포츠과학교실 등 구체적인 성과 지표를 설정해 과학적 훈련을 지원하고, 부상 예방과 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까지 책임진다.

## 부산체육 '브랜드 파워' 키운다



국제스포츠 교류 확대와 부산체육 브랜드 강화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과제다. 체육회는 종목단체의 국제교류 대회 개최와 참가를 지원하고, 생활체육 유공자에게 국외 연수 기회를 제공해 선진 체육 시스템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벤치마킹은 물론, 스포츠를 매개로 한 민간 외교 역할까지 함께 넓혀간다는 구상이다.

특히 국제청소년스포츠교류대회는 자매도시 일본 후쿠오카와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2025년부터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 아시아 지역과의 협약 체결을 확대해 부산을 '글로벌 스포츠 도시'로 각인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부산체육 소식지'는 오프라인으로 연 12회 발간해 월 2,800부, 연간 33,600부를 배포하고, 온라인 '부산체육 토크'은 월 8,000건 이상 도달의 메일 발송과 SNS 게시를 통해 연 96,000건 이상 도달을

목표로 한다. 종합체육대회 이슈와 월별 체육 현안을 반영한 기획기사, 유관단체장·전문·학교·생활체육 인터뷰, 수탁시설 소식 등을 담아 시민의 관심을 높이고 체육인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키운다는 취지다.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채널, 유튜브 등 소셜 네트워크 운영을 통해 대화와 행사 소식, 부산체육의 다양한 이야기를 더욱 폭넓게 전파한다. 대학생과 시민 15명으로 구성된 '부산스포츠 기자단'을 운영해 시민의 시선으로 현장을 기록하는 콘텐츠도 강화할 예정이다. 오는 6월 열릴 '부산체육 진흥 세미나'는 부산체육의 과거와 현재를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공론장으로 마련된다.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이를 통해 전문가와 기관 간 협력체계를 한층 넓히겠다는 계획이다.

부산광역시체육회의 2026년 계획은 '투명성'과 '현장성'을 앞세운 체육행정 혁신을 바탕으로, 학교·실업·생활체육을 잇는 연계 육성과 시민 참여 확대, 여기에 국제 교류와 콘텐츠 강화를 더한 종합 전략으로 정리된다. 이처럼 부산은 '스포츠 도시'로서의 다음 장을 차분히, 그러면서도 힘차게 열어나가고 있다.

## 건전한 스포츠 현장을 위한 노력 2025 WADA 총회

인간의 한계를 넘어 정상에 도달하기 위해 많은 스포츠인이 뼈를 깎는 노력을 한다. 그러나 모든 스포츠인이 공정하게 경기에 임하는 것은 아니다. 누군가는 약물 사용으로 부정하게 경기에 승리하고자 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세워진 조직이 WADA다. WADA는 지난해 12월, 부산 벡스코에서 5일간 총회를 열어 도핑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규약 및 개정안을 마련했다.



### 모두의 손으로 꽃피운 WADA 총회

동장군이 찾아온 12월, 벡스코에 세계 191개국의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부산에서 개최하는 WADA 총회에 참여하기 위해서였다. 총회는 6년마다 단 한 번, 전 세계 정부, 국가별 도핑방지기구, 선수, 전문가 등이 모이는 특별한 자리다. 총회에서는 도핑방지 규약과 국제표준이 정해지고, 전 세계 도핑방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된다. 더군다나 이번 '2025 WADA 총회'는 아시아 최초로 열린 총회인 만큼, 더 의미가 깊다.

이번 총회에는 위톨드 반카 회장, 국제올림픽위원회 커스티 코번트리 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코번트리 위원장의 경우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 것이기도 하다. 이번 WADA 총회는 부산시와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공동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며 진행됐다. 내로라하는 국내 대표 기업 역시 참여했다. 동아오츠카와 머거본, 삼진어묵 등이 참여해 자사 브랜드 식품을 제공했다.

WADA 총회 개최를 위해 많은 사람이 발 벗고 나섰다. 일선에 나선 것은 부산 대표 캐릭터인 '부기'와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캐릭터 '톤톤'이다. 두 캐릭터는 함께 홍보영상을 찍었고, 영상은 각 기관 유튜브 채널에 공개됐다. 영상은 벡스코, 사직야구장, 부산광역시체육회 월계관 등 주요 스포츠 현장을 배경으로 제작되었으며, 도핑 방지의 중요성을 유쾌하게 전달했다.

부산시와 한국도핑방지위원회도 힘을 보탰다. 10월 11일 부산시민공원 다솜광장에서 열리는 '달밤에체조 부산 챌린지'에서 WADA 총회의 홍보 활동을 펼쳤다. '달밤에체조 부산 챌린지'는 공원·해변 등 야외공간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으로, 두 기관은 공정한 스포츠 가치를 공유하고 시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 행사에는 다양한 유명인도 참여했다. 전 모글스키 국가대표이자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선수 위원인 서정화, 운동 인플루언서인 조진형, 이진이가 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시민과 함께하는 '달밤 머슬존', '러닝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WADA 총회 홍보 부스도 설치됐다. 홍보 부스에서는 '도핑 방지에 대한 퀴즈풀이', '가상현실(VR) 체험' 등이 진행됐다. 특히 마스크트 '톤톤'과 사진을 찍기 위해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다. 사람들은 총회에 대한 리플릿을 받으며 도핑 방지의 중요성과 WADA 총회에 대하여 한 번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2025 WADA 총회를 위해 많은 사람의 손길이 닿았다. 그에 화답하듯, WADA 총회는 성황리에 개최되어 스포츠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 공정한 스포츠의 장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간 것이다.

#### 부산의 중심에서 선언하다

많은 사람의 염원에 힘입어, 2025 WADA 총회가 무사히 개최됐다. 총회는 12월 1일부터 시작되어, 2일에 개회식과 함께 본격적으로 막을 열었다. 밤에 진심인 민족답게 1일과 3일에 큰 만찬이 2회 진행됐다. 첫째 날에는 누리마루 에어팩(APEC) 하우스에서 최취영 문체부 장관이 주재하는 사전 만찬을, 셋째 날에는 부산시 박형준 시장이 주재하는 환영 만찬이 진행됐다.

2일에는 미래의 스포츠 스타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진행되었다. 부산 소재 학교에서 열린 멘토링 프로그램이 대표적인 예다. 멘토링에는 올림픽·패럴림픽 메달리스트가 포함된 세계도핑방지기구와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소속 선수위원들이 참

여했다. 이는 청소년 선수들에게 세계 스포츠 무대의 실제 사례를 가르치는 동시에 미래 세대에게 깨끗한 스포츠 가치를 전하기 위해 개설되었다. 프로그램이 개설된 학교는 총 두 학교였다. 부산체육고등학교에서는 도핑 방지 퀴즈, 가상현실(VR) 체험을, 경남여자중학교에는 김연경 선수가 방문해 도핑 방지 교육과 종목 훈련을 진행했다.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벡스코에서는 세계도핑방지규약과 국제표준의 최종 확정을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선수위원회, 정부 기구 회의 등 분과 회의도 병행됐다. 5일간의 여정 동안 진행된 회의는 마지막 날에 폐회식과 함께 발표되었다. 규약 및 표준 개정은 5천 건 이상의 이해관계자의 의견, 60개국·70여 개 종목의 선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됐다. 선수 인권에 대한 추가적인 강조, 미성년 선수와 같은 보호가 필요한 선수들을 위한 정책 확대 등이 변경되었다. 개정된 규약 및 표준은 2027년부터 향후 6년간 전 세계 스포츠 현장에 적용된다.

회의에서 가장 주목받은 것은 '부산선언'이다. 이 선언에는 선수, 스포츠 단체, 정부 등 모든 관계자에게 도핑 근절을 위한 교육 외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다. 디지털을 활용한 도핑 방지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한국 정부의 제안으로, 세계도핑방지규약과 국제표준에 최초로 포함된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선언문에는 총회 개최 도시인 부산에 감사가 담겨 있어, 글로벌 클린 스포츠 허브로서 부산이 한 단계 도약했음을 알렸다.

#### 스포츠 도시 NO.1 부산을 향해

부산시는 선언을 실천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2026년에 한국도핑방지위원회와 협력하여 '아시아 청소년 클린스포츠 캠프'를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부산 지역과 아시아 개발도상국 청소년 선수를 대상으로 도핑 방지 교육과 멘토링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부산시는 프로그램 추진을 위해 2026년도 시 예산안에 편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할 상황이다.

부산시는 이번 총회를 추진력 삼아 글로벌 스포츠 허브 도시로서 발돋움할 예정이다. 또한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국제 스포츠 대회 유치 확대, 스포츠 산업 활성화 등 체육 전 분야로 성과를 확장할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총회에서 글로벌 스포츠 허브 도시이자 마이스(Meeting, Incentives, Convention, Events&Exhibition의 머리글자) 허브 도시로서 부산의 역량을 증명했다"며, "부산에서 클린스포츠의 새로운 방향이 발표된 만큼, 앞으로 공정한 스포츠 가치를 함께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 형성된 국제 협력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스포츠 허브 도시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스포츠 현장에 있어 한국 선수의 위상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그중에는 부산 선수들의 저력 또한 만만치 않다. 도핑 없는 스포츠 문화가 확산되어, 우리 선수들의 노력과 투혼이 더욱 빛나길 바란다.

# 스피드 스케이팅 유망주, 마침내 무지개를 만나다

한국조형예술고등학교  
김태희 선수



2025년, 스피드 스케이팅계에 눈에 띄는 샛별이 등장했다. 운동을 시작한 후 첫 개인 메달을 획득한 데 이어 전국 대회에서 연이어 순위권에 오르며 '2026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 출전권까지 따낸 김태희 선수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이제 막 빛을 내기 시작한 그를 만났다.

## 열악한 여건에도 꺾이지 않은 의지

사람들이 일과를 마치는 어둠이 내려앉은 시간. 방과 후 겨울바람을 뚫고 빙상장을 찾은 김태희 선수를 만났다. 김태희 선수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친구들과 스케이팅장에 갔다가 스케이팅을 경험하고 너무 재미있어서 부모님을 졸라 쇼트트랙을 배우게 됐다. 그리고 2년 후, 5학년이 되었을 때 선수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운동을 시작했다.

**“원래 스피드 스케이팅을 하고 싶었는데, 여건이 되지 않아 쇼트트랙을 먼저 하게 됐어요. 한동안 두 종목을 병행하다가 지난 시즌에 스피드 스케이팅으로 종목을 전향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스피드 스케이팅을 할 수 있는 곳은 태릉국제스케이팅장 한 곳뿐이라고 한다. 그렇다 보니 김태희 선수는 부산과 서울을 오가며 훈련하고 있다. 지금은 서울에 한 번 올라가면 몇 주씩 훈련을 하고 오지만, 그전에는 주말이면 부산에서 새벽 운동을 마치는 대로 서울로 가 훈련을 한 후 저녁에 부산으로 돌아오는 식이었다. 말만 들어도 쉽지 않은 일정을 김태희 선수는 묵묵히 견뎌냈고 여전히 해내고 있다. 초등학교 때를 떠올리면 운동이 힘들었던 기억뿐이라 말하면서도 운동을 놓지 않은 이유. 이렇게 힘든 여건 속에서도 계속해서 운동을 할 수 있었던 그의 원동력이 궁금해졌다.

## 종목 전향과 동시에 얻은 성과들

**“운동을 10년 가까이 하면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물론 있었어요. 그런데 돌이켜 보면 운동을 안 하겠다고 생각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힘들 때마다 마음을 다잡으면서 운동을 일상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김태희 선수는 자신의 강점이 ‘빨리빨리 잊어버리는 성격’이라고 했다. 그래서 성적이 좋지 않더라도 잘 털어버린다. 사실 처음부터 그렇게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던 건 아닌데, “걱정할 시간에 다음 대회를 준비해라”, “다가오는 현실을 마주해야 한다”라는 지도자들의 조언을 새겨두고 노력하다 보니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을 수 있게 됐다고.

쇼트트랙을 하는 동안 김태희 선수는 순위권에서 경쟁하는 선수가 아니었다. 그는 항상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성적을 내는 것을 목표로 운동을 꾸준히 해왔

으며 그렇게 하루하루 성장한 끝에 마침내 첫 메달을 거머쥐게 되었다.

그는 '2025 스피드 스케이팅 공인기록회'에서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로서 첫발을 내디딘 후, '제60회 전국남녀 종목별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권대회' 5,000m 3위, '제56회 회장배 전국남녀 스피드 스케이팅 대회' 여자 고등부 매스스타트 종목 1위, '2026 전국남녀 주니어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권대회' 3,000m 2위에 오르며 '2026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 출전권을 따냈다. 김태희 선수가 스피드 스케이팅으로 종목을 전향한 건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이 모든 성과가 종목을 전향한 그해에 얻은 것들이다. 쇼트트랙과 스피드 스케이팅은 경기 방식뿐만 아니라 주법도 달라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쇼트트랙을 하면서 자신의 경기 운영 방식이 스피드 스케이팅에 더 잘 맞다는 판단하에 전향을 결심했고, 그 판단이 맞았다는 것을 성적



으로 확실하게 증명했다.

### 비바람을 이겨내고 내딛은 한 걸음

스피드 스케이팅으로 전향한 뒤 첫 시즌을 맞이하기 전 김태희 선수는 일본으로 전지훈련을 갔고, 전지훈련이 메달을 획득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 그런데 전지훈련을 가기 전 김태희 선수는 운동선수로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냈다고 한다. 처음으로 '지금이라도 다른 길을 찾아야 하나?' 진지하게 고민했다. 그때 김진수 감독의 말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됐다고.

**“딱 4개월만 버티면 된다”는 감독님의 말씀이 위로가 됐어요. 4개월이면 성과를 낼 수 있다는데 포기하기는 아깝잖아요. 그때 감독님이 해주셨던 말씀이 아니었으면 저는 아마 이 자리에 없었을 수도 있어요.”**

김태희 선수의 좌우명은 '비바람을 겪지 않고서 어떻게 무지개를 볼 수 있냐'라고 한다. 운동일지에도 휴대폰 배경화면에도 적어놓은 이 문구를 보며 힘들 때마다 '곧 무지개를 볼 수 있다'며 마인드 컨트롤을 한다. 힘든 시기를 극복해내고 국가대표로서 세계 대회에 출전하게 된 소감을 묻지 않을 수 없었다.

**“경기가 끝난 후 전광판을 보니 2위에 제 이름이 있더라고요. 되게 알뜰뜰하고 믿기지 않았는데 부모님과 친구들의 축하를 들으면서 점점 실감이 났어요. 부담감도 있지만 좋은 컨디션으로 후회 없는 경기를 하고 싶습니다.”**

### 꾸준한 성장, 기세가 곧 실력

인터뷰를 진행한 시점에 김태희 선수는 주니어 월드컵 3차 대회를 앞두고 있었다. 김태희 선수는 1차 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얻었고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2차 대회에 출전하였다. 그런데 2차 대회에서 매스스타트 경기 룰이 바뀌면서 완주하지 못하고 탈락하는 아쉬움을 겪었다.

스피드 스케이팅이라고 하면 두 사람이 한 조가 되어 인코스 또는 아웃코스를 번갈아 활주한 후 기록으로 순위를 매기는 더블 트랙레이스 경기를 많이 떠올릴 것이다. 매스스타트는 여러 선수가 별도의 레일 없이 동시에 출발하여 바퀴 수마다 포인트가 부여되고 마지막 바퀴 수를 다 채운 후 순위를 매기는 방식이다. 그런데 이번 주니어 월드컵 2차에서는 두 바퀴마다 하위 순위의 선수 두 명을 탈락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똑같이 10바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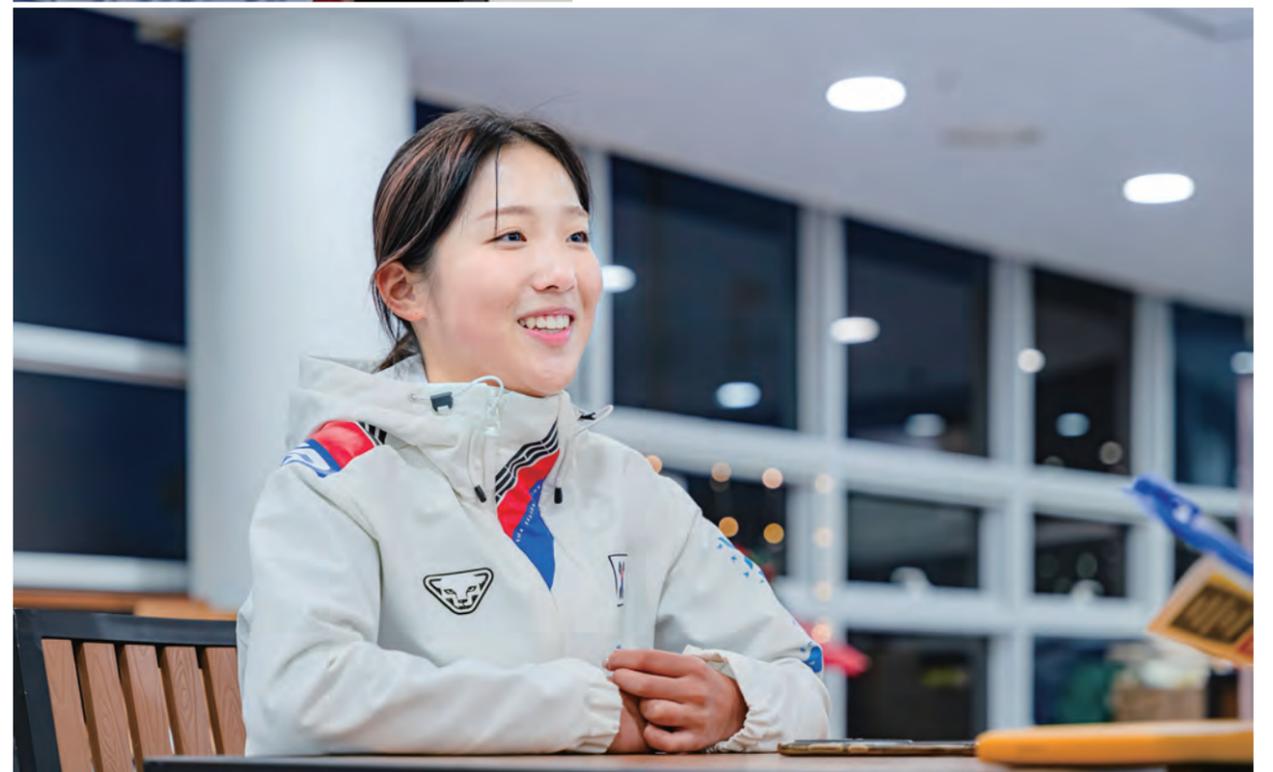


를 타면 되던 경기가 인원수에 따라 14바퀴까지 타게 되었다.

**“시계를 차고 경기를 하는데 탈락하는 선수 시계에서 진동이 울려요. 주니어 월드컵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한 방식이고 처음 접해본 방식이라 적응이 쉽지 않았어요. 2차 대회에서는 결과가 좋지 않았지만, 3차 대회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될 것 같아서 이번에는 제대로 준비하려고요. 그리고 동계체육대회 등 남아 있는 국내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고 싶습니다. 나중에는 올림픽 무대에 서고 싶어요.”**

김태희 선수가 지난해 낸 성과들은 얼핏 단기간 안에 갑자기 얻은 걸로 보일지 모르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자신이 해온 노력을 잘 알고 있는 김태희 선수는 그동안 열심히 한 노력이 드디어 빛을 발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운동도 '기세'가 중요하다는 김태희 선수. 이럴 때 방심하지 않고 더 열심히 해야 한다며 다시 한번 각오를 다졌다.

김태희 선수는 부족한 게 있더라도 성장 가능성이 보이는 선수가 되고 싶다고 했다. 그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보면 그 가능성은 무궁무진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기에 그의 행보가 더욱 기대된다.



얼음 위 직선주로를 시원하게 질주한다!

추진력을 극대화한 속도의 정점

## 스피드 스케이팅

주행 안정성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속도를 겨룬다.

빙상 종목 중 가장 시원한 볼거리를 선사하는 스피드 스케이팅의 매력을 한 겹 벗겨보자.



자료 출처: 대한빙상경기연맹

### 빙상 경기의 기원

지금의 빙상 기구는 북방 원시인들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개발한 교통 수단에서 비롯되었다. 이는 육상이나 투기와 같이 인류의 필요에 의해 발생한 신체 활동이라 정의할 수 있다. 선사시대 유적지에서 발견된 유물의 형태와 그 자료를 분석, 검토하는 것으로 빙상 장구의 발달 과정을 추측할 수 있다. 러시아 고고학계는 석기시대 동굴 속에서 발견된 유사 이전의 유물 중 동물 뼈로 만든 썰매 모양의 탐빙구를 발견했는데, 크기와 모양으로 보아 얼음 위를 활주한 용구였음이 증명되었다. 또한 대영박물관에 보관 중인 수골제 스케이팅과 스칸디나비아 원주민과 에스키모인들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마골제 스케이팅에서도 그 기원을 엿볼 수 있다.



### 한국의 스케이팅

스케이팅이 우리나라에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구미 여러 나라에서 각종 국제대회가 개최되고 올림픽대회가 열리기 시작한 19세기 이후다. 우리나라에서 스케이팅을 처음으로 소장한 사람은 현동순 씨로, 1908년 미국의 길렛 씨에게 경매로 구입했다고 전해진다.

당시 한국에서는 공산품 스케이팅을 구입하기 어려웠으므로 목판에 칼이나 철사 등을 붙인 것을 신발 밑에 덧대는 방식으로 스케이팅을 즐겼다. 이후 1912년 경성일보사가 용산 부근에 빙할장을 만들고 무료 개방한 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스케이팅장이다. 1915년에는 중국의 빙상단을 초청해 의주농업학교 부근의 경빙장에서 스케이팅 대회가 개최되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최한 국제빙상 경기다. 스케이팅이 대중에게 보급

되기 시작한 것은 1920년 이후인데, 1921년 12월 조선체육협회가 명동에 스케이팅장을 만들어 개방함으로써 일반인의 스케이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자연히 스케이팅 기술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1923년 대동강에서 시작된 전조선 빙상경기대회를 시작으로 1933년 전조선 중등학교 빙상대회, 1935년 한강에서 개최된 조선 여자 빙상경기대회 등의 대회가 개최되었는데 상당수의 대회가 아시아 빙상대회로 불릴 만큼 규모가 컸으며 우리나라 선수들은 단체·개인전 우승의 성적을 거두는 등 명성을 떨쳤다. 1932년부터 1938년까지는 일제 강점하에 일본 선수들과 경쟁하여 6년간 승리하는 등의 쾌거를 이루었으면 해방 전까지 전일본 선수권대회에서 이성덕, 최용진, 김정연, 박윤철, 편창남, 이효창 등이 8회에 걸쳐 우승을 이어나갔다.

### 경기 종목

남자	500m	1,000m	1,500m	5,000m	10,000m	팀추월(8바퀴)	팀 스프린트	매스스타트
여자	500m	1,000m	1,500m	3,000m	5,000m	팀추월(6바퀴)	팀 스프린트	매스스타트
혼성	혼성계주							

경기 종목으로는 남자의 경우 500m, 1,000m, 1,500m, 5,000m, 10,000m, 팀추월(8바퀴), 팀 스프린트, 매스스타트가, 여자의 경우 500m, 1,000m, 1,500m, 3,000m, 5,000m, 팀추월(6바퀴), 팀 스프린트, 매스스타트가, 혼성의 경우 혼성 계주가 있다.

2016년 세계 선수권 기준 매스스타트 종목이, 2019년 세계 선수권에선 팀추월이 추가되었으며 2024 세계 선수권에선 혼성계주가 추가되었다.

**경기 방식**

**개인**

- 코스는 인코스과 아웃코스로 구분
- 경기는 2인이 함께 진행하며 활주순서와 활주로(코스)를 미리 정함
- 각 주자는 1주할 때마다 정해진 교차구역에서 인코스과 아웃 코스를 번갈아 바꿈
- 주자가 동시에 교차점에서 충돌할 위험이 있을 때는 아웃코스 주자에게 우선권 부여
- 레이스에서 가장 빠른 기록을 낸 선수를 상위 순위로 결정

**팀추월**

- 3명이 한 팀을 구성, 트랙의 반대편에서 2개 팀이 동시에 출발
- 마지막 선수가 결승선 통과하는 기록을 측정하여 순위를 매김
- 남자는 8바퀴, 여자는 6바퀴 주행



**규칙**

**코스 및 완장**

팀추월과 매스스타트를 제외한 전 경기는 세퍼릿 코스로 진행된다. 한 바퀴를 돌 때마다 인코스과 아웃코스를 바꿔서 달려야 하는 구간이 있으며 구별 및 판정을 위해 개인 종목에서는 흰색과 빨간색, 팀추월에서는 선수별로 다른 색깔의 완장을 찬다.

**실격 사유**

- 준비 구호가 떨어진 후, 총성이 울리기 전 정지 자세에서 벗어나면 부정 출발, 두 번 반복 시 실격
- 자신의 코스를 완전히 벗어난 경우 심판 재량에 따라 실격될 수 있으며, 두 번 이상 적발된 경우 무조건 실격
- 코스를 잘못 들어설 경우
- 곡선 구간에서 굽게 칠해진 페인트 안쪽 선을 날로 밟거나 그 위의 블록을 건드린 경우
- 같은 바퀴 수를 달리는 팀원이 아닌 선수에게 페이스메이킹을 주고받는 경우
- 충돌한 경우, 충돌 책임이 있는 선수만 실격
- 팀추월 경기에서 도착 인원이 3명 미만인 경우
- 경기 중 기권한 경우
- 경기 도중 암밴드를 벗어던진 경우
- 피니시 과정에서 킥아웃 한 경우
- 트랜스폰더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경기에서 실격하면 순위 자체에서 배제되지만, 팀추월의 경우 진출했던 단계까지의 순위는 인정된다. 올림픽 개인전에서 실격하면 등수에서 제외되는 반면, 팀추월 준결승전에서 실격하면 동메달 결정전을 치르고, 결승전에서 실격하면 은메달을 획득하는 방식이다.



**대한민국 역대 스피드 스케이팅 올림픽 성적**



**1992 알베르빌 동계올림픽**  
 남자 1,000m | 은메달 | 김윤만 선수

**2014 소치 동계올림픽**  
 여자 500m | 금메달 | 이상화 선수  
 남자 팀추월 | 은메달 | 김철민, 이승훈, 주형준 선수

**2006 토리노 동계올림픽**  
 남자 500m | 동메달 | 이강석 선수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남자 1,500m | 동메달 | 김민석 선수  
 여자 500m | 은메달 | 이상화 선수  
 남자 500m | 은메달 | 차민규 선수  
 남자 팀추월 | 은메달 | 김민석, 이승훈, 정재원 선수  
 남자 1,000m | 동메달 | 김태윤 선수  
 여자 매스스타트 | 은메달 | 김보름 선수  
 남자 매스스타트 | 금메달 | 이승훈 선수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남자 5,000m | 은메달 | 이승훈 선수  
 남자 500m | 금메달 | 모태범 선수  
 여자 500m | 금메달 | 이상화 선수  
 남자 1,000m | 은메달 | 모태범 선수  
 남자 10,000m | 금메달 | 이승훈 선수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남자 1,500m | 동메달 | 김민석 선수  
 남자 500m | 은메달 | 차민규 선수  
 남자 매스스타트 | 은메달 | 정재원 선수  
 남자 매스스타트 | 동메달 | 이승훈 선수

# 트렌드 코리아 2026

2026 대한민국 소비트렌드 전망

2026년 새해가 밝았다.

매년 이맘때면 우리는 새로운 해를 맞이하며  
변화의 흐름을 읽어내고자 한다.

하지만 올해는 조금 다르다.

우리 앞에 펼쳐진 변화는 단순한 트렌드를 넘어서  
조금 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진다.

“AI 대전환 시대,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 인간의 78수를 기억하며

10년 전, 2016년 3월. 세계는 서울 포시즌스 호텔의 한 바둑판에 시선을 고정했다.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대국. 당시 이세돌 9단의 78수는 알파고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창의적인 수였다. 그날 우리는 깨달았다. 기계가 아무리 정교해져도 인간에게는 여전히 ‘자신만의 수’가 있다는 것을.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이제 인공지능은 우리의 삶에 더 깊숙이 들어왔다. 질문을 던지면 답을 내놓고, 그림을 그려주고, 때로는 우리보다 더 나은 결정을 내리기도 한다. 김난도 교수는 과거 말(馬)이 인류에게 가장 강력한 동력 수단이었듯, 이제 AI가 그 자리를 대신한다고 말한다. 병오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트렌드 코리아 2026』이 제시하는 키워드 ‘HORSE POWER’는 그래서 의미심장하다. AI라는 강력한 힘을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인가.

## 루프 안에 남은 인간

연구팀은 AI 시대 인간 개입의 단계를 세 가지로 구분한다. 인간이 AI의 업무 과정에 적극 개입하는 휴먼인더루프(Human-in-the-loop), 인간이 AI의 결과를 수동적으로 감시하고 검증하는 휴먼온더루프(Human-on-the-loop), 그리고 인간의 개입 없이 AI가 완전히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휴먼아웃오브더루프(Human-out-of-the-loop).

그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바람직한 모델로 제시되는 ‘휴먼인더루프’다. 이는 AI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한 번은 인간이 개입해야 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다. 단순히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 속에 들어가 판단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결국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깊이 있는 사유와 전문성이 최종결과의 품질을 좌우함을 말한다.

여기서 우리는 김난도 교수가 말하는 그리스 신화의 반인반수 켈타우로스를 떠올릴 수 있다. 하체는 말의 힘과 속도를, 상체는 인간의 지혜와 이성을 지닌 존재. 김난도 교수는 AI의 처리 능력을 활용하되 인간의 감성과 통찰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한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최종 판단과 의미 부여는 인간의 몫이라는 것이다.

## 나만의 78수를 찾아서

『트렌드 코리아 2026』이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변화의 파도는 거세고 AI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빠르고 더 깊숙하게 우리 삶을 바꾸고 있다. 하지만 그 파도 위에서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인간만이 가진 창의성, 감성, 그리고 깊이 있는 사유다. 결국 기술을 도구로 삼을 것인지, 기술에 의존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인간이다.

10년 전 그 78수를 기억하며 우리는 다시 바둑판 앞에 앉는다. 이번에는 AI와 대결하는 것이 아니라, AI와 함께 두는 바둑이다. 중요한 것은 나만의 가장 인간적인 수를 찾는 것이다.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의 해. 우리는 어디로 달려갈 것인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무엇을 잃지 않을 것인가. 이 책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지침서가 되기를 바란다.



저자\_김난도 외  
출판사\_미래의창



## ‘2025 부산체육인의 밤’ 행사 개최 2025년 부산체육 발전을 이끈 주역들 한자리에 모여

부산광역시체육회는 2025년 12월 23일(화) 호텔농심에서 부산체육 발전을 위해 공헌한 유공자 및 체육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새로운 결의를 다지기 위해 ‘2025 부산체육인의 밤’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을 비롯해 구·군 체육회 임직원과 회원종목단체 임직원, 시체육회 임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역대 최대의 인원이 모인 가운데 개최되었다.

행사는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 ‘2025 부산광역시장배 슈퍼컵대회’(7개 종목, 생활체육 동호인 24,000여 명 참가) 입상 팀 시상과 우수종목단체에 대한 시상, 한 해를 되돌아보는 영상 상영, ‘2025 부산체육 유공자’ 시상 순으로 진행되었다. 유공자 표창에는 부산광역시장표창, 부산광역시체육회장표창 등 개인 및 단체 표창을 수여하였다.

한편 부산광역시체육회는 2025년 한 해 동안에 부산체육의 많은 성과 중에서 주목할만한 5가지 내용, ‘광역시·도 최초 체육국 출범’, ‘전국체육대회 52년 만에 종합 2위 달성’, ‘체육활동 참여율 전국 1등 달성’, ‘양정모 선수 금메달 예비문화유산 선정’, ‘전국소년체전 역대 최고 성적 거양’ 등을 발표하였다. 이처럼 부산체육인들은 동·하계 전국체육대회를 비롯한 각종 생활체육대회 등 다양한 스포츠 이벤트로 숨 가쁘게 달려온 한 해를 돌아봤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2025년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의 성과를 발판삼아 2026년에는 전국소년체육대회가 개최되는 만큼 시민들과 체육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전하며, 전국 규모 대회의 지속적인 개최를 통해 스포츠 도시 부산의 위상을 제고하고 부산체육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부산광역시체육회 2025년 Big 5 성과 선정

## 광역시·도 최초 '체육국' 출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25년 만에 부산 개최 등 부산체육이 이뤄낸 성과 발표

부산광역시체육회는 부산체육의 발전을 이루고 빛나는 성과를 얻은 2025년을 기념하며 '자랑스러운 부산체육 더 자랑스럽게 2025 Big 5'를 선정했다.

'자랑스러운 부산체육 더 자랑스럽게 2025 Big 5'는 △글로벌 스포츠도시 부산을 위한 첫걸음, 광역시·도 최초 '체육국' 출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25년 만에 부산 개최, '52년 만의 종합 2위 달성' △생활체육 천국도시 부산, 체육활동 참여율 전국 1위, 80% 돌파 △부산체육 자긍심 높인, 양정모 선수 금메달, 예비문화유산 선정 △부산체육 전국에서 빛나다(동계체전 18년 연속 종합 5위 달성, 소년체전 역대 최고 성적, 전국 시·군·구 체육회 성과평가 부산광역시 2위 달성, 부산스포츠과학센터 스포츠 영재 육성 사업 2년 연속 선정) 등이다.

2025년, 부산체육이 이룬 성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광역시·도 최초 체육국 출범을 꼽을 수 있다. 체육국은 출범과 동시에 스포츠 천국도시 동행 행사를 통해 전국체육대회 개최지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스포츠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였으며, 체육 분야의 행정 전문성을 강화하여 선수 지원, 시민 체육참여 프로그램 확대 등 체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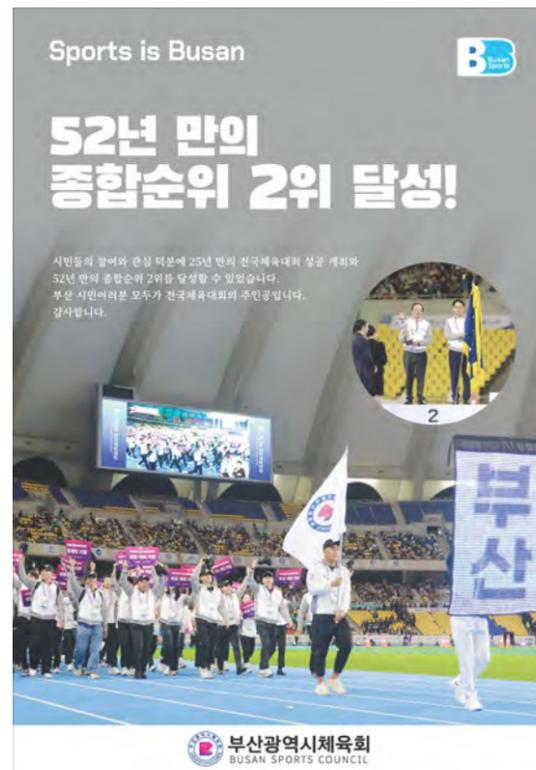
또한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25년 만에 부산 개최 및 52년 만의 종합 2위 달성, 제106회 전국동계체육대회 18년 연속 종합 5위,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역대 최고 성적 달성 등의 빛나는 성과는 부산의 전문체육에 대한 경쟁력을 입증했다.

'생활체육 천국도시' 부산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4 국민생활체육 조사'에서 생활체육 참여율 전국 1위(80.3%)를 기록했다. 이는 '달밤에 체조 부산 챌린지', '달려라 부산' 등 시민들의 체육 활동 참여 환경을 조성한 덕분에 얻은 결과다.

이어서 부산은 2024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 중 '전국 시·군·구 체육회 성과평가'에서 생애주기별 체육활동 지원 등 우수한 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으며 2위에 올랐다. 그뿐만 아니라 부산스포츠과학센터가 과학적 스포츠 영재 육성 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되면서 지역의 미래 체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재 양성에 다각적 지원을 지속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다. 1976년 제21회 캐나다 몬트리올 국제하계올림픽대회에서 양정모 선수가 획득한 금메달이 예비문화유산에 선정되면서 부산체육의 자긍심을 높인 것이다.

이처럼 부산체육은 2025년에 눈부신 성과들을 얻었다. 이에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부산이 생활체육 천국도시 정책을 통해 글로벌 스포츠 도시 부산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청소년 스포츠 인재 육성, 스포츠 행사 유치 및 공모사업 참여 등을 통해 스포츠로 일상이 즐겁고 행복한 체육 천국도시 부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 레슬링 양정모 선수 '대한민국 최초 금메달' 예비문화유산 선정

## 1976년 캐나다 몬트리올 올림픽 레슬링 금메달 보존

1976년 대한민국 최초로 국제 하계올림픽에서 획득한 레슬링 양정모 선수의 금메달이 대한민국 첫 예비문화유산에 최종 선정됐다.

국가유산청에서 선정하는 예비문화유산은 제작·형성된 지 50년이 경과하지 않은 근현대문화유산을 발굴·선정하여 향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보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근현대사의 주요 상징물인 10건의 유산을 첫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했으며,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영웅인 양정모 선수가 획득한 금메달이 포함됐다.

양정모 선수의 금메달은 기술적 성과를 넘어 한국의 자긍심을

드높인 상징적인 유물로 평가되며, 한국 최초의 금메달로서 한국 체육사에 있어 그 희소성이 매우 높다.

금메달은 현재 부산광역시체육회관 국제대회기념전시관에 전시되어 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1976년 제21회 캐나다 몬트리올 올림픽, 부산 출신 양정모 선수 금메달의 예비문화유산 선정은 역사적 가치를 확인함과 동시에 부산체육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부산 대표 문화유산으로 소중히 보존하겠다"는 말을 전했다.





## 구군체육회 소식

### 중구체육회



#### 제36회 부산시민체육대축전 참가

2025년 11월 29일(토)과 30일(일), 사직실내체육관 외 13개소에서 '제36회 부산시민체육대축전'이 개최되었다.

중구체육회는 전아재에서 자갈치 시장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인상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였으며, 총 10개 종목(게이트볼, 배드민턴, 볼링, 족구, 축구, 테니스, 국학기공, 체조, 파크골프, 줄넘기)에 120여 명이 참가하여 게이트볼 종목 우승이라는 쾌거를 거두었다. 또한 종목별 경기 및 개회식에 많은 인원이 참여하여 화합상을 수상하였다.

### 서구체육회



#### 주5일제 생활체육 실천광장 성료

2025년 12월 13일(토), 서구체육회는 김해 롯데워터파크에서 '주5일제 생활체육 실천광장'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

프로그램은 가족 단위 참가자를 대상으로 기획·운영되었으며, 접수 시작 1분 이내에 마감될 만큼 높은 관심을 받았다. 참가자들은 가족 공동의 여가 시간을 통해 소중한 추억을 쌓았으며 신체활동을 통한 건강 증진과 스트레스 해소 기회를 가졌다. 서구체육회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동구체육회



#### '2025 동구체육인의 밤' 행사 개최

동구체육회는 2025년 12월 12일(금) '2025 동구체육인의 밤' 행사를 개최하였다.

한 해 동안 체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체육회 내·외빈, 학교 관계자, 선수, 생활체육 동호인을 초청하였으며, 함께한 동구체육회 황현선 회장, 부산광역시체육회 박가서 상임부회장, 광곡택 서·동구 국회의원이 격려와 축하 인사를 전했다. 2025년에는 동구 관내 경남여중 3명, 부산고 3명 총 6명의 선수가 국가대표로 발탁되어 행사의 의미가 더욱 빛났다.

### 영도구체육회



#### '영도구체육회 송년회 및 체육인의 밤' 행사 개최

2025년 12월 9일(화), 영도 목장원에서 한 해 동안 체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체육회 임원, 내빈, 생활체육 동호인이 모두 모인 가운데 '영도구체육회 송년회 및 체육인의 밤' 행사가 진행되었다.

2025년 한 해를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고 축하하는 대화를 나누며 친목을 도모하였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2026년을 준비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 부산진구체육회



#### 2025년 백양산 숲길 걷기대회 개최

부산진구체육회는 2025년 11월 9일(일) 부산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바람고개까지 이어지는 왕복 6.2km 코스에서 '2025년 백양산 숲길 걷기대회'를 개최하였다.

남녀노소 1,000여 명이 참여해 백양산의 가을 풍경을 즐기며 건강한 걸음을 나눴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욱 부산진구청장과 부산진구체육회 김석조 회장이 참석해 참가자들을 격려했으며, 체육회 임원들도 함께해 힘을 더했다.

### 동래구체육회



#### '2025년도 동래구 체육인의 밤' 행사 개최

동래구체육회는 2025년 12월 16일(화) 호텔농심에서 '2025년도 동래구 체육인의 밤' 행사를 개최하였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동래구 체육인들의 친목을 다지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는 체육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시상, 동래구체육회 및 동래구국민체육센터 추진사업 성과 보고 등이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 한 해 동안의 노력과 성취를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유대와 화합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 남구체육회



#### '부산광역시남구 체육인의 밤' 행사 개최

2025년 12월 10일(수), 그랜드모먼트에서 '부산광역시남구 체육인의 밤'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날 남구체육회 정춘식 회장, 오은택 남구청장, 서성부 남구의회회장을 비롯한 시·구의원과 회원종목단체 임원도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오프닝 공연부터 행운권 추첨까지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었으며, 남구축구협회 트로피 전달식과 생활체육진흥 유공자에 대한 표창패 수여식도 이루어졌다.

### 해운대구체육회



#### '2025 해운대구 체육인의 밤' 행사 개최

해운대구체육회는 2025년 12월 15일(월) 해운대 더파티에서 연간 추진한 체육 업무의 성과 분석과 체육 진흥 및 활성화에 헌신한 체육 유공자에 대한 시상과 체육회 사기 진작을 위한 '2025 해운대구 체육인의 밤' 행사를 개최하였다.

행사에는 해운대구체육회 박영곤 회장 포함 140여 명의 내외빈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이날 16명의 체육 유공자들에게는 그들의 헌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담긴 공로패와 표창장이 수여되었으며, 만찬과 경품 추첨을 진행하여 화합의 장이 펼쳐졌다.



## 구군체육회 소식

### 사하구체육회



#### 제15회 사하구청장배 탁구대회 개최

사하구체육회는 2025년 12월 7일(일) 동아대학교 체육관에서 '제15회 사하구청장배 탁구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대회에는 사하구 내 동호회 및 클럽 소속 선수와 일반 참가자들이 대거 참여하여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열기와 함께 수준 높은 경기를 선보였다. 사하구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구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육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으며, 참가자들은 정정당당한 스포츠맨십을 바탕으로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였다.

### 금정구체육회



#### '2025년도 금정구체육회 송년의 밤' 행사 개최

2025년 12월 10일(수), '2025년도 금정구체육회 송년의 밤' 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부산광역시체육회 사무처장, 국회의원, 금정구청장, 금정구의회 의장을 비롯해 많은 내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참석자들은 한 해 동안 금정구체육회가 걸어온 발자취를 되돌아보며 생활체육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이들의 노고를 격려하였으며, 함께 화합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또한 새해에도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성장해나갈 것을 다짐하였다.

### 강서구체육회



#### 2025년 강서구청장기 초·중등부 축구대회 개최

강서구체육회가 주관한 '2025년 강서구청장기 초·중등부 축구대회'가 2025년 11월 8일(토) 명지 축구운동장과 신호 축구운동장에서 김형찬 강서구청장 외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에는 초등학교(7개교)와 중학교(6개교) 학생 300여 명이 참가하여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였다. 학생들은 정정당당하게 경기에 임하였으며, 대회를 통해 화합을 다졌다. 대회 결과 초등부는 녹산초등학교, 중등부는 경일중학교가 우승을 차지하였다.

### 연제구체육회



#### '2025년 연제구체육회 체육인의 밤' 행사 개최

2025년 12월 9일(화), 양정 롯데 갤러리움에서 개최한 '2025년 연제구체육회 체육인의 밤' 행사가 연제구민과 체육인들의 관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주석수 연제구청장을 비롯해 권종헌 구의장, 역대 회장단, 연제구체육회 임원진 및 27개 종목협회장과 관계자, 연제구청 육상팀 등 180여 명이 모여 한 해 동안 추진했던 주요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 체육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시상하며 화합을 다지고 도약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 수영구체육회



#### '수영구 체육가족 송년의 밤' 행사 개최

2025년 12월 18일(목), 신라호텔에서 2025년 '수영구 체육가족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수영구청장과 수영구체육회장을 비롯해 체육회 임원 및 관계자가 참석하여 한 해 동안 수영구 체육 발전을 위해 헌신한 체육인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한 해 동안 추진된 사업과 성과를 돌아보고, 새해에도 수영구 체육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 사상구체육회



#### 2025 전국사상ECO마라톤대회 개최

2023년에 시작하여 2025년에 제3회를 맞은 '전국사상ECO마라톤대회'가 전국 각지에서 모인 러너 3,500여 명의 뜨거운 참여 속에 2025년 11월 9일(일)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는 참가자의 체력과 목적에 따라 가족 단위와 초보 러너가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5km 슬로우 조깅, 건강한 일상 속 달리기를 지향하는 5km 건강달리기, 기록과 경쟁의 재미를 더한 10km 로드레이스로 구성·운영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했다.

### 기장군체육회



#### '2025 기장군 체육인의 밤' 행사 개최

2025년 12월 20일(토), '2025 기장군 체육인의 밤' 행사에 참석한 기장군 체육인들이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축제의 장을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의 의미를 실천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으며 기장군체육회 최상철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체육은 건강을 넘어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힘"이라 강조하며,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 모금 참여를 독려했다. 이에 기장군 체육인들은 한마음으로 성금을 모아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였다.





부산국민체육센터

**꿈나무 체능단 겨울캠프 개최**

부산국민체육센터 꿈나무 체능단은 2025년 12월 19일(금)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단원들이 즐겁고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겨울 캠프'를 진행했다. 벅스코 상상놀이 체험관을 방문한 체능단 단원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드넓은 실내 놀이터를 보며 "드디어 겨울캠프 시간이다!"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각종 놀이기구를 타고 튜브 슬라이드를 타고 내려오며 짜릿한 즐거움을 만끽했고, 물 위를 떠다니는 놀이기구를 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또한 안전로프에 몸을 맡기고 클라이밍을 하는 경험은 단원들에게 색다른 재미를 더했으며, 단원들은 "공중 위에 뜨니까 기분이 좋아요! 하늘을 나는 것 같아요!"라며 행복한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다. 담임선생님과 인솔자가 함께 참여하여 단원 한 명 한 명의 안전을 세심히 살펴, 안전한 환경에서 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즐거웠던 캠프를 마무리하고 꿈나무 체능단은 2주간의 겨울방학을 시작한다.

강서구국민체육센터



**방학 특강 프로그램 개강**

강서구국민체육센터는 1월 2일(금)부터 1월 23일(금)까지 관내 초등학생들에게 방학 기간에 건전한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성과 책임감을 기르면서 즐겁게 방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겨울방학 특강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소그룹으로 진행된 방학 특강 수업을 통해 물에 대한 친밀감을 일깨워 주며,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방학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INFORMATION



부산종합실내테니스장

**2026년 새해 맞이 대청소**

부산종합실내테니스장은 2025년 12월 24일(수)에 2026년 새해 맞이 대청소를 진행하였다. 테니스장 실내, 화장실, 탈의실 등 부대시설까지 대청소를 진행하며 이용회원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부산종합실내테니스장은 연 3~4회 정기적인 대청소를 통해 앞으로도 쾌적하고 안전한 운동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부산실내빙상장

**부산실내빙상장 크리스마스 이벤트 개최**

부산실내빙상장은 2025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부산 시민들에게 선물 같은 특별 이벤트를 마련하였다. 키다리 산타 아저씨의 요술풍선쇼와 피겨스케이팅 갈라쇼를 선보였으며 솜사탕과 팝콘 증정을 통해 시민들의 눈과 입을 만족시켰다. 또한 행사 마지막에는 럭키드로우를 통해 약 60명에게 경품을 전달하는 등 이날 2025년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방문객을 기록했다. 부산실내빙상장은 앞으로도 시민 만족도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 제공과 콘텐츠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헬스장 시설 환경 개선**

신평장림체육관은 회원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헬스장 내 대형거울을 설치하였다. 이를 통해 운동 시 자세 확인이 용이하여 운동 효과 향상과 부상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어르신스포츠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통해 월 회원 200명을 돌파하며 지역 어르신들의 체육관 이용 확대와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용자 중심의 시설 개선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만족도 높은 체육관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신평장림체육관

## 부산광역시테니스협회

1

### 2025년 제5회 머거본배 전국 동호인 테니스 대회 개최

‘제5회 머거본배 전국 동호인 테니스 대회’가 2025년 12월 13일(토)부터 14일(일)까지 이틀간 성공적으로 치러졌다. 이번 대회는 부산종합실내테니스장, 스포원테니스장, 화명생태공원테니스장, 을숙도테니스장, 명지테니스장 등 부산 전역의 주요 테니스장에서 분산 진행됐으며 전국 각지 약

250명의 동호인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본 대회는 전국의 동호인 간 교류 확대는 물론, 부산 지역 테니스 저변 확대와 생활체육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 부문별 경기 결과

##### 오픈부

우승: 임승현·박세진  
준우승: 최병열·이충현  
공동 3위: 이연재·문경현 / 김태환·신준영

##### 신인부

우승: 김태영·이관규  
준우승: 노운탁·강재성  
공동 3위: 정호영·조리운 / 김정수·한기명

##### 개나리부

우승: 김은경·김보정  
준우승: 이지민·정덕성  
공동 3위: 박미정·진경희 / 윤경주·강수진



## 동의과학대스포츠클럽

2

### 제3회 전국스포츠클럽 교류전 최다 종목 출전 우수 성적

동의과학대스포츠클럽이 2025년 11월 21일(금)부터 23일(일)까지 3일간 진행된 ‘제3회 전국스포츠클럽 교류전’에 참여했다. 이번 대회는 전국 105개 스포츠클럽에서 3,500여 명이 참여한 역대 최대 규모 대회였다. 동의과학대스포츠클럽은 수영, 농구, 배구, 야구, 축구 등 5개 종목에 출전해 우수한 경기력을 선보였다. 축구 U12 취미반이 3위를 기록했고 농구 취미반(중등부) 역시 3위를

차지했다. 배구와 야구 성인부는 나란히 준우승을 기록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과 팀워크를 확인하는 성과를 만들어 냈다. 이번 교류전은 회원들의 경기 경험 확대와 스포츠 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동의과학대스포츠클럽은 향후에도 다양한 스포츠 프로그램과 대회 참여를 통해 지역 스포츠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 부산체육을 더욱 재미있게 즐기는 방법!

『부산체육』을 읽고 이벤트에 응모해 보세요. 이번 호에 실린 기사에서 퀴즈의 정답을 모두 찾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편의점 기프트콘을 선물로 드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2025년에는 WADA 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총회는 ○○○ 최초로 부산에서 열리는 총회인 만큼 의미가 깊었는데요. ○○○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① 세계                      ② 아시아                      ③ 국내

**2** 한국조형예술고등학교 ○○○ 선수는 쇼트트랙과 스피드 스케이팅을 병행하다가 스피드 스케이팅 종목으로 전향한 후 '2026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 출전권까지 따냈습니다. 이 선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① 김태희                      ② 김사랑                      ③ 김태리

**3** 부산광역시체육회는 '2025 부산체육인의 밤'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을 비롯하여 역대 최다 인원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는데요.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인원은 대략 몇 명이었을까요?  
① 300                          ② 400                          ③ 500

## 『부산체육』 제85호 <부산체육 퀴즈> 정답 및 당첨자

### 정답

1. ③ 배구 2. ① 18년 3. ② 남구

### 당첨자

진\*정(0759) 정\*담(1581) 임\*현(5689) 박\*국(0171) 정\*람(0618)  
박\*희(9531) 박\*희(4504) 이\*희(5174) 이\*익(3527) 김\*호(0293)

## 퀴즈가 조금 어려우신가요? 힌트와 해당 기사를 참고하여 풀어보세요!



**1** **힌트** 총회는 6년마다 단 한 번, 전 세계 정부, 국가별 도핑방지기구, 선수, 전문가 등이 모이는 특별한 자리다. 총회에서는 도핑방지 규약과 국제 표준이 정해지고, 전 세계 도핑방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된다. 더군다나 이번 '2025 WADA 총회'는 ○○○ 최초로 열리는 총회인 만큼, 더 의미가 깊다.

<Sports is Busan> 31쪽

**2** **힌트** 스피드 스케이팅 유망주, 마침내 무지개를 만나다. 한국조형예술고등학교 ○○○ 선수

<푸른 바다, 큰 꿈> 34쪽

**3** **힌트** 이날 행사에는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을 비롯해 구·군체육회 임직원과 회원종목단체 임직원, 시체육회 임원 등 ○○○여 명이 참석해 역대 최대의 인원이 모인 가운데 개최되었다.

<BSC 뉴스> 44쪽

## 이벤트 응모

퀴즈의 정답을 모두 맞힌 분 중 10명을 추첨하여 편의점 기프트콘을 보내드립니다.



네이버 플랫폼 바로 가기

응모 기간 2026.1.15.(목)~1.31.(토)  
응모 방법 네이버 플랫폼 양식 작성 후 제출  
정답 및 당첨자 발표 『부산체육』 제87호 <부산체육 퀴즈> 게재 및 개별 연락



www.busanaircruise.co.kr

부산광역시체육회 공식 파트너



# 송도해상케이블카 부산에어크루즈

볼수록 새로운 바다! 갈수록 색다른 재미! 탈수록 즐거운 송도해상케이블카  
하늘과 바다를 가로지르는 감동, 생생한 테마와 즐거움을 경험하세요!



스카이하버 전망대



다이너서드벤처



어린이왕자



어린이왕자 비행기



소원의 용



모멘트 캡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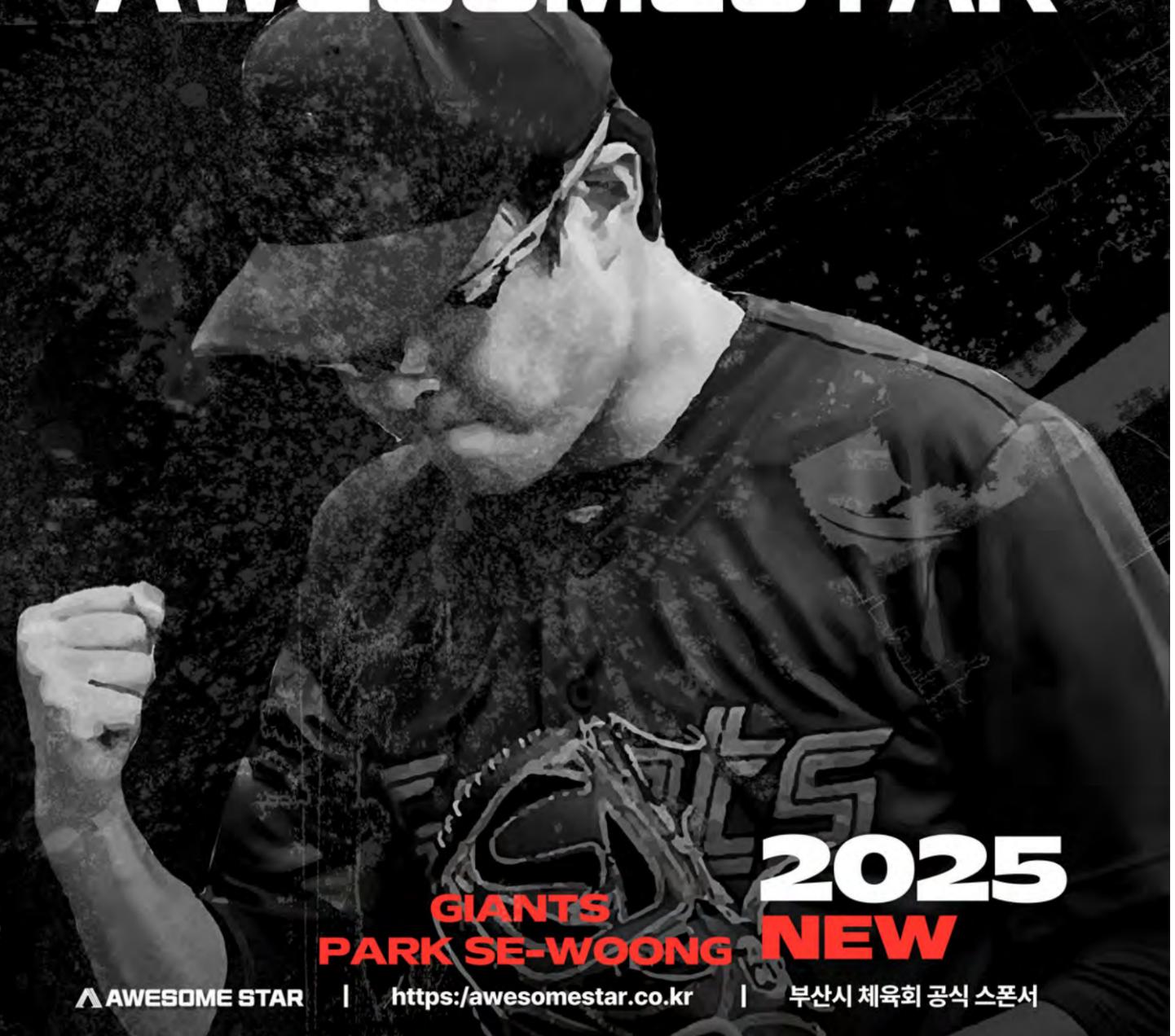
문의전화 051) 247-9900



프로들이 선택한 No.1 스포츠 브랜드 어썸스타

# KEEP GOING AWESOMESTAR

부산광역시체육회 공식 스폰서



GIANTS  
PARK SE-WOONG  
2025  
NEW

AWESOME STAR

https://awesomestar.co.kr

부산시 체육회 공식 스폰서



# walkon, 편안함을 넘어 회복으로

walkon은 단순한 휴식이 아닌 회복을 추구합니다.  
수동적인 멈춤을 통해 회복하는 개념이 아닌, 능동적인 걸음을 통해  
당신의 일상을 빠르게 회복시킵니다.

## 걸음을 켜고(walkon) 건강을 신다



특허출원번호  
제 10-2170264호

### Heal Heel

충격에너지를 공간에서 소비하게  
만들어, 종아리와 요추에 전달되는  
충격을 20~25%가량 줄여줍니다

### Toyole

발바닥의 용천혈을 자극하여, 운동  
후 생기는 발의 피로와 붓기를 빠르게  
회복시킵니다

### Reushion Project

Reushion Project를 통해 환경의  
보호와 사회적기업의 가치를 실현  
합니다

### After Sports

운동후 피로 회복 / 건강회복에 도움

REUSHION



구입처 <https://walk-on.co.kr/> 문의처 051-521-3442

부산광역시체육회의  
언론보도 내용, 부산체육 특특 등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만나볼 수 있는  
부산광역시체육회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해주세요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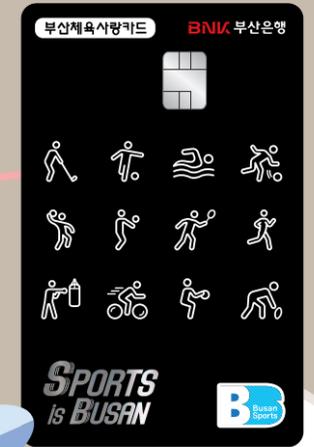


금융을 편리하게  
미래를 풍요롭게



# 부산광역시체육회와 함께하는 부산체육사랑카드

부산시체육회 지정 체육시설 10%,  
월 최대 1만5천원 할인!  
스포츠, 의료, 학원 등 생활 곳곳에서 할인 챙기세요!



**연회비** 국내전용(BC) 1만원(기본 연회비 없음, 제휴 연회비 1만원)  
※ 전월 실적 40만원 이상 사용 시 할인혜택 제공

- 체육시설** 부산시체육회 지정 시설 10% 할인
- 스포츠** 골프/스포츠/레저 업종 10% 할인
- 의료** 병의원/약국 업종 10% 할인
- 생활** 간편결제/CU/GS25/스타벅스 5% 할인
- 학원** 학원 업종 5% 할인

**필수 안내사항**

※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 발급이 부정당한 경우(연체금 보유, 신용점수 등 낮음) 카드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카드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 결제일에 상환합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연체이자율 : 회원별, 이용상품별 약정금리+최대 3%p, 법정최고금리(20%) 이내 (단, 연체발생 시점에 약정 금리가 없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적용 합니다.)  
-일시불 거래 연체 시 : 거래발생 시점의 최소기간(2개월) 유이자 할부금리 -무이자 할부 거래 연체 시 : 거래 발생 시점의 동일한 할부 계약기간의 유이자 할부금리  
-그 외의 경우 : 약정금리는 상환상 상사법정이율과 상호금융 기계자금 대출금리\* 중 높은 금리 적용  
\*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 대출금리(신규대출 기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은행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또는 부산은행 고객센터(1588-6200)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사인 상의필 2025-2441 (심의일자 2025.11.03) 유효기간: 2025.11.03 ~ 2026.10.24  
여신금융협회 심의필 제 2025-C-14-16286호(2025.11.03 ~ 2026.10.24)

세상을 가슴 뛰게 하는 금융 **BNK 부산은행**

금융을 편리하게  
미래를 풍요롭게

# BANK 사장님 월급통장

처음이라는  
묘한 떨림

첫 가게, 첫 고객,  
그리고 사장님을 위한 첫 통장  
사장님의 시작이 놓인 곳에  
부산은행이 함께 하겠습니다.



[상품 바로가기]

- [상품유형]** 기입MMDA
- [가입대상]** 만 17세이상 개인사업자 (사업장당 1계좌 가입 가능)
- [입금제한]** 최대 1천만원까지 (현일단위로 입금 가능)
  - 입금 시 1천만원 넘는 거래가 발생 시 해당거래 전체 입금불가
  - 근거좌로부터 자동지속을 통한 입금만 가능, 그 외의 입금은 모두 제한 (단, 이 통장의 이자입금 제외)
- [이자지급시기]** 다음 기준일에 계산하여 결산일에 원금에 대하여 지급
  -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셋째 일요일
  - 결산일 : 이자계산 기준일 당일
  - 이자계산 기간은 최초예금일(또는 지난 결산일)부터 결산일 전일까지
- [판매채널]** 모바일뱅킹
- [금리안내]**
  - 기본이율 : 1.60%
  - 우대이율 : 카드가맹점 입금실적 연 0.20%p(2025.6.24기준)
  - 기본금리 및 우대금리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변경된 금리를 적용
  - 우대금리 적용조건 : 전월기준 근거좌좌로 4개 이상 카드사 가맹점결제 입금실적이 있는 경우

- [입금(자동지속)]**
  - 자동지속의 기준금액은 전일 근거좌좌의 총 입금액에서 총 출금액을 제외한 금액이며, 기준금액에서 설정한 비율 또는 금액으로 확정 금액이 다음날 자동지속방식으로 이 통장으로 입금
  - 자동지속을 신청(반영)한 다음날부터 자동지속이 시작(반영)되며 매일(공휴일, 주말포함) 적용
  - 자동지속금액이 실행되는 시점에 근거좌좌의 잔액이 자동지속금액보다 적은 경우 이체 불가
  - 자동지속이 매일 실행되는 시점(오전 8시부터 순차적 실행)의 설정/중단 여부에 따라 해당일의 자동지속 여부 결정
  - 자동지속되는 금액은 1천원~1백만원으로 천원단위로 가능
  - 두가지의 모으기 방법 중 하나의 모으기 방법만 선택 가능하며 변경 가능
    - ① 비율로 모으기 : 기준금액 X 비율(5%, 10%, 15%)
    - ② 금액으로 모으기 : 고객이 설정한 금액만큼 자동지속 실행

- [예금가입 유의사항]**
  -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됩니다.
  - ※ 금융상품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해당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듣고 내용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부산은행 고객센터(1588-6200/1544-62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5-1553 (심의일자: 2025.07.16) | 유효기간: 2025.07.16 - 2025.12.31

세상을 가슴 뛰게 하는 금융 **BNK** 부산은행

# 행복온도°

세상을 따뜻하게, 사람을 행복하게  
부산도시가스는 '함께'의 세상을 실현합니다.  
사람으로 향하는 따뜻한 길  
부산도시가스가 행복온도(溫道)를 만들어갑니다.

부산도시가스 | SK 이노베이션 E&S

## 사회적 약자를 위한 노력

- 행복도시락 (2007~)
- 사랑의 김치나눔한마당 (2011~)
- 비대면 인프라 구축을 통한 고독사 예방 (2020~)
- 사회적 약자보호 업무협약 (2022~)

## 보편적 에너지복지 위한 노력

- 에너지소외계층 안전점검 및 CO경보기 지원 (2007~)
- 복지시설 노후 가스기기교체지원 (2015~)

##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

- 착한에너지학교 (2011~)
- 행복한 에너지 동행 (2023~)

